

Vol.48



온누리에서 온

편지



선 교 지 의 소 식 과
기 도 제 목 을 담 은 러 브 레 터

ON편지

목 차 • Vol. 48

04 선교지 이야기 1

잊혀진 일본의 원주민, 아이누족

08 선교지 이야기 2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땅, 아이티

12 국내

월 박향기 임성숙 송바울·양세비아 아리엘·수산나 김순종·소하은 존·그레이스 제찌온·김세라
조수아·이사라 김우·김은 고진우·혜현

화 에스더 이생명·이샘물 강모세·김은혜

수 사라 윤대근·신미아 캐일럽·크리스틴 조경근·브린다 이보라 임선아

목 박영환·윤유희 이경원 조은 이준 방갈렘·홍수아 허길·유진리 권은영 구리빙스턴·김마리아 임소망

금 조중환·임미경 이훈·오지영

토 비파·수금 채필립·조이폴 최서우·박은아 김미정

34 동아시아

월 이노아·오바다 김요한·에스더 석사라 바나바·루디아 바울·그레이스 강사랑

화 J·Y 선교사 최화평·차하은 백두·한라 뭉흐새흙·젠드마 장한결·임열매 순종·온유

수 디도·뵤비 마리아 J·H 선교사 양아브라함·천사라 C·M 선교사 요한·S 선교사

목 김바울·손애희 이형석·서우숙

금 이재석·백지현 고종달·박미옥 윤충성·김온유 이노우에마키·테루꼬 강진아

토 강호건·강유 박재원 박성근·김인옥 허드슨·안마리 김재경·박지혜

56 남아시아

월 바울·조이 강새롬 차이널 김 벤자민 J 선교사 제니 정다니엘·안나 존 데이비드

화 끼에우·프영 정은유·최열매 조티모시·김레베카 필립 김폴린 U·Y 선교사 제자·임재
김데이비드·김아비가일

수 C·M 선교사 이상오·박선희 한창욱·김미혜 소리엘·소리샘 부름·받아 다윗·한나 이기쁨·문한나
이우람·김조은

목 유애녹·서에스더 정닛시·조로이 한애녹·유니스 박은진 D·Y 선교사 M 선교사 시므온·안나
H 선교사

금 리차드·샬리 Joseph Lee·Shiny Choi Erwin·Rachel 정갈렘·박수아 이삭·리브가 Joseph·추행란
데이비드·베라 이성희

토 S·M 선교사 H 선교사 김주경·윤사라 장은혜 김영미 B·K 선교사 아굴라·브리스길라 김빌립·이사라

82 중동

월 엠바나바·이사라 김순중·천사랑 손충성·송이레 조햄릿·강에스터 이영광·이찬양 조하늘·박별
김바나바·김드보라

화 방샘물·김은유 정하진 최권능·윤예지 라함 E 선교사 브리스길라 배다윗·김화목 복음·하나
한솔로·레이아

수 전세계·문열림 알리·라니아 레반트 난민사역팀 박겸손·장에스터 이빛·이샘 아쉬레·마리
박새소망

목 아굴라·브리스가 최밀알·이평강 이요한·안드보라 여호수아·에스겔 새노래 신아벨·이셀라
서요셉·황로즈

금 황디모데·송예나 아브라함 정·사라 정 한젠슨·한조니 반석·하나 바나바·송사라 아브라함·그레이스
오갈렘·김쉐리

토 이다윗·정빛 한길·임사랑 에스라·에젤 S·O 선교사 S·J 선교사

110 아프리카

월 보아스·나오미 김갈렙·차한나

화 정피터·손사라

수 피터·조안

목 이에녹·Aysata Lee

금 노아·세아 트레즈 김

토 김루이스·강한나 박일구·신인순 이보라 가브리엘·소피아 아이작·사만다 정직한·정결한
윤브루하누·이블렌 갈렙 신·조슈아 홍 김현우·우주희 김빌립·임뵤뵤 김사무엘·에스터
그레이스 조 이영재·최영미 박사라 이성령·김단비

126 유라시아 · 미주 · 오세아니아

월 문경배·이명선 이다윗·헵시바 안디옥

화 설영·설민 조요한·박사랑 차요셉·방라헬

수 D·I 선교사 김영환·김주영

목 김은하 박사무엘·에녹 파울리따

금 박성주·노영이 심재욱·장선애

토 홍에스터 그렉·박미리

152 사람들 이야기

〈ON편지〉와 함께한 시간

154 질병중에 있는 선교사

155 선교기관 기도제목

156 ON편지 안내 및 활용법

잊혀진 일본의 원주민, 아이누족

홋카이도의 변방으로 밀려난 일본 땅의 본래 주인, 아이누족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홋카이도는 많은 눈과 잘 보존된 자연으로 세계 3대 축제인 삿포로 눈꽃축제를 관람하러 해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러브레터’ 촬영지 오타루가 있는 곳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화려한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 홋카이도에는 소외된 ‘아이누’ 민족이 있다. ‘아이누’란 아이누어로 ‘인간’을 뜻한다. 일본의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아이누’는 서기 7세기부터 ‘에미시’ 또는 ‘에조’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역사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이누인은 일본인과 교류하며 공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삿포로, 오타루 등 홋카이도 섬의 대다수의 지명들은 일본의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다고 한다. 이곳의 원주민인 아이누인들이 쓰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형태라는 것이다.



아이누족의 모습 (1904년), ©사진 = 뉴시스 /AP

여기서 잠시 일본의 지리와 일본인의 기원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지리적으로 일본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홋카이도(北海島), 혼슈(本州), 시코쿠(四国), 규슈(九州) 4개의 섬이 차례로 자리잡은 열도의 국가다. 여기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센다이 등 주요 도시가 있는 가장 큰 섬이 혼슈다. 한편, 천황을

비롯해 과거 한반도, 특히 주로 백제에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주류 본토인들의 조상을 야요이인이라 하는데, 이 야요이인의 후손이 현재 일본 주류 민족인 야마토 민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야마토 정권은 초창기 혼슈 동부와 규슈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일본 영토를 혼슈 섬 동쪽과 홋카이도까지 차례차례 확장해 왔다. 이렇게 남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토착민 오랑캐를 정벌하는 사람을 ‘정이다장군’이라 불렀는데, 이 장군(將軍)의 일본어 발음이 곧 ‘쇼군’이다. 여기서 일본의 토착민 오랑캐는 아이누 원주민을 의

미하는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중세 역사는 이들을 쫓아내는 과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아이누 인들은 본 섬(혼슈)에서 쫓겨나 홋카이도, 러시아의 사할린, 쿠릴열도 등지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수백년간 차별받고 착취당한 아이누인

그러다가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에도(도쿄의 옛 이름) 정부가 들어서자 아이누인들은 홋카이도 섬마저 일본에 주도권을 내어주고 노예로 전락했다. 이후 일본 상인들은 홋카이도 각지에서 교역과 어업을 장악하고, 아이누 인들은 어장에 고용되어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누인 남성들은 강제로 일본 상인들과 5년 이상 노동하도록 징발되었고, 아이누 여성들은 남편과 헤어지고 일본 상인 및 어부들과의 재혼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상인에 의해 전염된 천연두로 아이누 인구는 약 4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정부는 아이누를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정책과 함께 후일, 조선에서 행하던 것과 같이 창씨개명을 실시했다. 또 아이누인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고 강제로 이주시키는가 하면, 2차 대전 시기 강제징용과 착취를 일삼다가 패전 후에는 농지개혁 정책으로 아이누인들의 토지를 강탈했다. 일본 역사 내내 아이누인들은 일본정부에 의해 철저히 희생되어왔던 것이다.

현재 홋카이도의 인구는 메이지 시대 이후 200배(56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아이누인의 인구는 2만 3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비공식적으로는 대략 20만 명으로 추측되나 일본의 인종차별 문제와 일본인



아이누인과 함께 한 존 배첼러 선교사(가운데)의 모습

출 처 : <http://japan-travelers-eyes.blogspot.com/2014/02/john-batchelor.html>

과의 통혼으로 인하여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는 상태다. 2019년 2월, 일본 정부는 헌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아이누를 독자적인 언어와 종교 및 문화를 가진 원주민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 국민으로서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쌍꺼풀 있는 우묵한 눈과 약간 검은 피부를 가진 외모의 아이누인들에 대한 구별과 차별은 여전하다. 실제로 아이누인의 고교졸업률은 50%가 채 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빈곤한 상태다.

선교지이야기1

게다가 일본의 초등/중등학교들은 아이누인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아이누인 선교의 역사

그러나 이런 아이누인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었다. 훗날 1878년, 영국 성공회선교협회(CMS) 존 배첼러(John Batchelor) 선교사가 이곳에 온 것이다. 실제로 배첼러는 23세부터 86세가 되던 1940년까지 무려 63년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는 노년에 자서전을 통해 청년의 때에 품었던 마음을 이렇게 회고했다.

“일본인이 아이누인 가족이나 한 마을 전체를 추방하고

**그들이 소유하던 토지를 빼앗는 것을 보았다. 또 일본인이 아이누인에 대해 경멸하며
저속한 언어로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
아이누인에게도 전하고 싶다. 일본인들이 이들을 억압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위로하고 하나님의 빛을 알게 하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배첼러 선교사는 아이누어를 열심히 공부해 아이누어로 설교하고 찬양했으며, 성경을 직접 번역하여 ‘아이누어 신약성서’(1897년)를 발간하였다. 또한 그는 곳곳에 아이누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며 교육에도 힘을 썼는데 이를 통해서 뛰어난 교육자와 사역자가 많이 배출되어, 그가 사역하던 한참 때에는 아이누인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파시즘의 기원이 된 천황제가 확립되면서 아이누인들 역시 천황에 대한 충성과 숭배를 강요당했고, 일본 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아이누인 신자의 수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배첼러 선교사가 초심을 잃고 나중에 천황제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실망한 아이누인들의 복음에 대한 회의와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견해도 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현재 아이누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할 아이누족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소외된 아이누인을 위해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홋카이도 중북부의 소도시 루모이에는 아이누민족정보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일본그리스도교단의 비영리단체가 세웠다고 한다. 이 센터의 책임자는 미우라 타다오라는 일본인 목사인데, 일본인들이 과거 아이누인들이 박해받을 때 그



2018 년 러브소나타 집회 한 장면 © CGNTV

들에게 무관심했던 과오를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 센터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 래도 고무적인 것은 홋카이도의 기독교인 비율은 최남단의 오키나와와 함께 약 3% 정도로 1%에도 못 미치는 일본의 타지역보다 다소 높다는 것이다. 2007년에 시작된 일본 선교집 회 <러브 소나타>는 첫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도 열렸다. “올해 러브 소나타 가운데 일본 현 지 교회의 협력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라고 평가될 만큼 그해 삿포로에서 열린 집회는 강당 을 가득 메우고도 모자라 약 300여 명이 영상으로 집회에 참석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이 어서 2010년 아사히카와, 2014년 오비히로 그리고 2018년에 삿포로에서 다시 한 번 러브 소나타가 열렸고, 매년 새로운 결신자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이제 홋카이도 에서 숨죽여 지내는 아이누인들에게도 이어지길 기도해야 하겠다. 동시에 일본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아이누인들을 섬기고, 이들이 일본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 | |
|------|--|
| 기도제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차별과 멸시로 인한 아이누인의 상처가 회복되고 온전한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 일본 정부가 아이누인을 차별한 과거사를 반성하고 아이누인의 권익향상에 힘쓰도록 · 일본인들이 아이누인을 비롯해 재일한국인, 오키나와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 아이누인을 섬기는 일본교회를 축복하시고, 홋카이도의 복음화가 더 확대되도록 |
|------|--|
-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땅, 아이티



지진 후 야외에서 밤을 보낸 아이티 레카이 주민들
© AP 통신, 2021.8.15

총체적 무정부상태의 아이티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던 지난 7월, 아이티에서는 대통령이 암살되었다. 부패와 빈곤, 치안의 악화에 분노한 아이티 국민은 그동안 해외의 원조금을 착복하고 임기 연장을 노린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의 퇴진을 거세게 외쳤지만, 막상 배후도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대통령이 피살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곧이어 8월에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차로 다섯 시간이 넘는 곳에 위치한 열악한 소도시에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일어나 2천여 명이 사망하고 1만 2천여 명이 다쳤으며 5만 3천 가구가 파괴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3일 뒤에는 열대성 폭풍우가 아이티를 강타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긴급하게 상황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아이티 정부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아이티는 잦은 군부 쿠데타와 독재를 경험했기에 90년대 후반에 군대를 해산하고 경찰에 방위기능을 이관하는 한편, UN평화유지군에 치안과 안보를 위임했다. 그러다 2017년 군대 재건을 발표하였고 평화유지군은 철수하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 군대가 없었기에 재난과 급박한 안보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공권력은 실로 미미했고, 아이티의 도로는 무장 갱단들이 점령하여 외부로부터의 구호물자조차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현재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40% 지역을 갱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티에서는 최근 폭동, 강도와 강간, 살인 등 온갖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특히 무장갱단의 납치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엔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에서

납치됐다가 16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고 지난 10월에는 포르토프랭스에서 미국과 캐나다 국적 선교사 17명이 납치되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무정부상태다.

아메리카를 떠도는 아이티 난민

아이티인들은 결국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웃한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 이주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농업이 붕괴되고 기초적인 산업이 없어 일자리도 생필품도 없는 아이티인들은 줄곧 국경의 시장에서 소량의 농작물을 팔아 생필품을 구하거나, 국경을 넘어 대농장에서 노동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체류 인구가 감당할 수 없이 많아지자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인들을 강제추방하기 시작했고, 도미니카 내에 잔류한 아이티인들을 학대하고 구타하는 일이 더욱 만연해졌다. 2010년 대지진 이후에는 남쪽으로 떠나는 이민자가 급증했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던 브라질 정부는 이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해 정착을 도왔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일자리가 없어진 15만 명의 아이티인들은 다시 칠레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노점, 청소, 건설현장 등의 일을 주로 했는데, 이런 일로 버티기에 칠레의 물가는 너무 비쌌다. 게다가 2018년이 되자 칠레 정부도 아이티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이민친화적 공약을 발표한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들은 기대감으로 다시 짐을 꾸렸다. 하지만 이들의 미국행도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9월 텍사스주 델리오의 국경다리 부근에 약 1만 5천 명에 달하는 아이티인들이 난민촌을 형성하며 강을 건너고자 했는데, 미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이들을 추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말을 탄 국경순찰대가 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난민들을 쫓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은 다소 과격하게 난민의 유입을 막고 있지만, 아이티인들은 목마름과 굶주림을 견디며 어떻게든 미국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뿌리가 있는 나라

하지만 아이티는 매우 견고한 뿌리를 지닌 나라다. 140년이나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으나,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싸워 1804년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였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독립한 근대 공화국이 되었다. 특히, 흑인 주도의 근대적 정부가 구성된 것으로는 세계 최초였다. 또한 노예제를 폐지한 것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 다음이었다. 게다가 이들의 독립전쟁의 동력이 되었던 근본적 가치관 또한 기독교에 근거한 자유주의였으며, 아이티 혁명은 미국혁명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실제로 아이티인의 95%가 기독교인이며

선교지이야기2

가톨릭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개신교인도 약 1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 각국에서 노예로 이주해 오면서 주술적인 아프리카 토착신앙이 가톨릭과 결합하였고, 이것이 부두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부두교는 흔히 흑마술, 악마숭배, 식인풍습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란한 제의 과정에서 영매가 신접을 하고 산 제물의 피를 마셔 신을 충족시킴으로 풍요와 평화, 치유를 보상받고자 하는 종교로 죽음의 영에 대한 공포적 신앙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오랜 노예 생활과 더불어 삶에 무력감을 더해주고 있어 이들에게 다시금 참된 복음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복음에 기초한 아이티의 재건을 위해

다행스럽게도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이티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교회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37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해 아이티에서 다양한 재건사업을 벌였다. 아이티는 문맹률이 50% 이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기에,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는 한편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아이들을 모아 수업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부모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사역을 진행해오고 있다. 오랜 식민지배 영향으로 아이티인들은 프랑스어와 아이티 크레올어를 사용하지만,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필요하기에 직업학교를 세워 언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예배로 인도하고 있다. 2010년 지진 이후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빈민가 시티솔레의 ‘러브앤호프 선교센터’를 방문한 미국 유학생 부부는 쓰레기더미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눈에 띄혀 음악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악기는 미주지역 교회의 음악 행사 등을 통해 기부되었고 악기를 배운 아이티 아이들은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이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자존감이다. 그들의 건강한 뿌리를 되찾는 것, 즉 기독교 신앙에 기초했던 독립과 건국의 과정을 되새기게 하면서 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비전을 회복시키는 일일 것이다. 아이티 현지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역과 함께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재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우리도 함께 응원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겠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의 모습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홈페이지

기도제목

- 아이티 정국이 안정되어 아이티인들의 기본적인 생존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 주술과 저주의 부두교 신앙을 버리고 소망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 사역자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아이티 난민을 품는 나라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도록
 - 아이티가 독립과 건국 당시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



온누리에서 ON편지

국내

국내

박향기

개발연구원의 필드 지도자 훈련을 주님의 지혜와 기도로 돕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분들께 살롬을 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17의 영어 표현인 “Faith Comes By Hearing”에서 지은 이름과 같이 FCBH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이 성경을 듣게 됩니다. 식사할 때나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하지만 은밀한 장소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듣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주님에 비해 제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너무 턱없이 적은 것을 봅니다. 회개하며 성경듣기를 통해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온바이블팀이 M미션과 함께 국제적인 온라인 성경듣기 운동에 처음으로 동참하고 이어 성경쓰기를 지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월에 경험 있는 현장 선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인 H2H(흠투흠)과 H2K(흠투킹덤) 과정에서 FCBH 사역 전략과 비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딸이 기독교학교 영어교사로서 첫 학기를 마쳤습니다. 만 18세인 둘째도 강박불안증으로 아직 많이 힘들어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며 성장통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고 진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멤버케어 사역에 동역자들과 함께 돌봄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물맷돌 온라인학교에 꼭 필요한 선교사들이 연결되도록
- 은퇴준비학교에서 할 강의를 주님의 지혜로 준비하고 감당하도록
- 주님을 의지해 어머니를 기쁨과 지혜로 섬기도록

국내

임성숙

온누리 다문화평생교육원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우리 사회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생활도, 사회생활도 자유로운 날을 기대해봅니다.

지난 9월에 서초공동체 베드로 다락방에서 아웃리치를 오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온누리 다문화평생교육원(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서 교육 받는 외국인 아동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에서 한국의 문화예절과 한복입기 체험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향남읍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아웃리치가 취소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대신에 다락방장님 부부께서 직접 오셔서 위로해주시고, 수업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와 학생들 간식비를 후원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사역 중이지만 이곳이야말로 선교지이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로 구성되다 보니 이곳이 바로 선교지 중 최전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편이 불편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다락방장님 부부를 통해 순원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역하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서로 만나 기쁨의 동역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제목

- 온누리 다문화평생교육원에 오는 모든 학생 및 강사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 대면수업이 시작되는데 방학할 때까지 학생, 강사들 그리고 스태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도록
- 온누리 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사역하는 스태프들이 하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서로 화목하도록

국내

송바울
양세비아

안식년 기간 동안 온전한 쉼과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본부 사역 잘 마무리하도록
-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현장, 국내외 선교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 자녀들(대학1, 고2, 중2)이 학업의 집중과 성취를 맛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인도받도록

국내

아리엘
수산나

페르시아어 일대일교재 번역을 잘 마무리하여 양육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 한국어 교원양성과정을 준비하는 수산나 선교사에게 지혜를 더해주시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 처음 한국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둘째가 학교 수업에 잘 적응하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몇 가지 강의를 듣는 첫째에게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국내

김순종
소하은

본부 사역과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놀라운 분별력 주시도록

-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소망의 복음만 붙들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족 되도록
- 세 자녀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나도록

국내

존
그레이스

재개된 베트남 이주민 예배에서 만나는 이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 가족 모두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가정 되도록
- 베트남 예배를 함께 섬기는 응언 전도사에게 성령 충만과 학업의 지혜 주시도록
- 존 선교사와 둘째에게 학업의 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도록, 첫째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국내

제씨온
김세라

본부 사역인 TIM 기획 동원 일을 잘 섬기도록

-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과 세상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가정이 되도록
- 하반기 선교 동원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영혼을 살리는 심리 상담이 진행되어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 자녀들(6학년, 3학년)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국내

조수아
이사라

차기 사역을 위한 준비가 순직히 이루어지도록

- 차기 사역을 위해 미국 영주권 진행을 보류하고 파라과이 영주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영주권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 내년 3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를 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 자녀들에게 주님의 소명과 비전을 주셔서 잘 준비하도록
- 둘째가 12월 말 졸업 후 직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국내

김우
김은

영육이 강건하도록

- 김은 선교사의 연약한 육신(방광염 2번째 발병 장기간 치료 중, 족저근막염)이 회복되도록
- JATC를 통하여 열방과 선교 동북아에 선교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첫째가 웹툰 작가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국내

고진우
혜현

오직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 C 자매의 해외 선교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를 실천하도록
- 정부의 거짓과 탄압 가운데 동북아의 교회와 영적 리더십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으로 동북아와 열방 가운데 복이 되도록
- 군입대한 아들이 살아계신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군 생활하도록

국내

에스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께 살롬을 드리며, 항상 기도로 후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줌 예배만 지속되는 가운데 긴급 돌봄 교실은 매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에 오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줌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불교, 이슬람인 아이들은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속히 센터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주간 한국어 교실 방학이 끝나고 두 분의 한국어 선생님이 오셔서 1학년 아이들 한글을 지도해주시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선생님과 재밌고 신나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예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주일학교 아웃팅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롭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준비되도록 기도 중입니다.

미얀마 재정착 난민 7기 가정이 김포에 정착하였습니다. 덕분에 5명의 유치부 친구와 1명의 초등학생 친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둔 세 가정이 이곳에 잘 적응하여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캄보디아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주일예배 봉사자 선생님이 많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을 보내주시도록
- 특별활동이 속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미술, 태권도 등 봉사해주실 선생님이 오시도록
- 건강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 어머니가 허리 4, 5번 디스크가 많이 안 좋아서 다리가 불편하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회복되어 기도하시는 삶에 방해되지 않고 건강히 살아가시도록

국내

이생명 · 이샘물

우즈베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도록

우즈베키스탄 현지는 지난 4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복잡한 정치, 경제, 외교 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는 국경이 맞닿아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이 아프간 난민 운송 지원을 위해 공항을 제공해, 난민들이 독일로 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소식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우즈베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처럼 국가 내부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극우 이슬람주의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안디잔’이란 도시에서 2005년에 일어난 민중 시위를 정부가 국가 전복 세력이 흔드는 것으로 오판해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사격하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독재자로 악명 높았던 전 대통령 사망 후, 총리였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가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과거 정부와 달리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핍박과 반대, 감시가 존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막대한 금액의 벌금형을 감수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까지 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 가정은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민족을 변화시키실 새날을 소망하며 여전히 딸을 보냈던 그 땅을 품고 연약한 무릎을 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기독교인들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 아들이 1월 정기입원 시 MRI검사의 위험을 피할 수 있기를, 눈 출혈 증상이 사라지고 각막염 증 재발이 없도록, 근조직 퇴행이 멈추고 회복되도록
- 온커넥트 사역이 선교사님들과 현지 영혼을 살리는 온라인 선교 플랫폼이 되도록
- 샘물 선교사가 간병 가운데 지치지 않고 견고해지도록
- 생명 선교사 아버님의 폐암, 전립선암과 샘물 선교사 큰오빠의 폐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녕하세요! 지나치게 더웠던 여름도 물러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문턱에서 문안을 드리며,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원뉴맨(One New Man)에서의 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X국에서 도망치듯 나온 아흐마드라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은 태어나서 줄곧 살던 자기 나라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난민 비자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부모님은 소년을 설득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미지의 나라로 받을 때는 것이 이만저만 두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떠나지 않으면 자신도 부모님도 목숨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니다.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구나 하는 안도감에 소년은 스프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공항 경찰에 의해 소년 아버지의 목덜미가 잡히는 사건이 몇 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 이곳을 떠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외치는 아버지의 아람어를 누구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아흐마드의 등과 목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눈앞이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끌려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소년의 가족은 한 난민 쉼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서 두 살 어린아이들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쓰고,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몇 번이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흐마드는 마음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 어디에 좀 기대고 싶은데 그곳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사진처럼 박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 간 아버지가 싫은데도 자꾸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게임 속으로 들어가자, 거기엔 고통이 없는 것 같다.’

아흐마드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국을 떠나면서 자국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흐마드의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아 주면 좋겠는데 그 또한 연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유리컵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시며...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면 이 소년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달려가서 아흐마드를 껴안아주고 싶습니다.

난민은 타문화권 속으로 들어온 어린아이요, 장애인요, 부상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는 일에는 시간은 물론 육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가 참으로 많이 요구됩니다. 난민들은 보통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죽음을 직접 보고 또 자신들의 집과 사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체험한 이들은 공포와 두려움, 불안이 무의식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보고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아 뒤로 물러서거나 아예 참여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한 개개인으로 볼 때, 한 영혼으로 볼 때 우리는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동역자들과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협력할 때 한 영혼 살리는 이 일을 지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든지 모든 순간을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교회와 모든 동역자님에게 임하길, 성령의 바람과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난민의 외양 속에 숨어 있는 존귀함과 아름다운 가치를 볼 수 있도록
- 난민 가정이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회복하여 각국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 온 가족이 늘 성령 충만하고, 김은혜 선교사의 체력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 자녀들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세상을 섬길 전공과 직업을 찾도록

국내

사라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길

할렐루야! 어려운 중에도 말씀 붙드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쭉쭉!

크마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리나 전도사님과 기술적인 부분 맡아주시는 실력 있는 젊은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리나 전도사님 가족들의 코로나19 확진 소식과 그에 뒤이은 할머니의 사망 소식은 작년에 한국에 공부하러 오자마자 시작된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운 전도사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가족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전도사님도 올해 말까지 한국에서 남은 학업 기간 동안 주님의 위로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할 수 없었던 성찬도 온라인으로는 가능해서 은혜가 더하여졌고 공동체 성도들은 온라인 상에서도 즐겁게 수련회에 참여하는 밝은 형제자매들의 모습에 해외 아웃리치 이상의 감동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청년 때 선교에 헌신했던 뜨거움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새신자가 예배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외출을 스스로 삼가고 지체들과도 연락을 끊고 사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새로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 힘든데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돌아가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위젯 형제와 찬양 팀으로 오래 섬겼던 라이충 형제가 가족들과 함께하겠다고 8월 초에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력난을 겪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 형제들이 주일까지 일해야 해서 예배와 멀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캄보디아 예배는 말씀과 찬양 소그룹, 기도 외에 형제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수련회로 기획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낸 4명의 형제, 자매들의 간증과 두 편의 드라마 등도 제작했습니다. 드라마 영상은 10분 내외로 김포와 안산 형제들 모두 기대 이상으로 완성도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형제들이니 잘만 이끌어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캄보디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뛰어난 국민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게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편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의 이직 기회를 다 쓰고 주·야간 근무하는 회사에 안착하여 일하고 있는 썸포아 형제는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세 번의 이직 중 두 번은 회사에 일이 없어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어야 했고 다른 한 번도 회사의 문제로 인한 이직이었는데 회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구직 기간도 처음에는 한 달이었는데 세 번째는 하루로 짧아져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주위 동료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빈대와 바퀴벌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지만 인내하며 빌립보서 4:6~7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방으로 옮겨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형제들을 격려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게 가능하구나 신기해하던 단계를 넘어서니 “온라인 수련회도 좋은데 직접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면 더 좋겠어요” 하며 형제들이 대면의 날을 더욱 고대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캄보디아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돈만 있으면 뭐든 안 되는 게 없는 물질 만능주의가 더욱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모두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우리 형제들이지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닮은 제자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 형제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암송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믿음의 자매를 만나 주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 M센터 캄보디아 모임과 헤브론 교회를 담당하는 햄 형제에게 목회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멘토를 허락하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간 센헤잉 형제가 영어로 공부하게 되는데 언어에 기쁨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아내의 알레르기가 잘 치료되어 건강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 크마어로 잘 말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선교 사역이 제한받고 있음에도, 올 한 해 끊임없이 비대면 사역을 통해 사역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9월 말에는 파키스탄 현지 목회자들과 비대면 여성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파키스탄 비대면 여성 선교 세미나에는 매일 100여 명의 신학생과 성도, 목회자들이 참석해 선교적인 영성으로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리스천 ‘여성’들이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교 세미나는 이슬람권 복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파키스탄 교회의 여성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건너온 난민 여성들과 주변 이슬람국가 그리고 파키스탄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를 위해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일어날 선교 관심자들을 위한 훈련과 선교사 허입 절차 과정을 진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제목

- 윤대근 선교사에게 쉼의 시간이 허락되고, 주님께 집중하며 섬기도록
- 신미아 선교사가 사역과 가정일 병행에 지치지 않고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도록
- 아이들이 온라인 홈스쿨링을 잘 따라가도록, 아침 QT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 올해 안에 파송교회가 세워지도록, 가족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국내

캐일럽
크리스틴

말씀 통독 중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기쁨, 감사가 충만하도록

-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로 신훈련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 둘째, 셋째 자녀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영육 간에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 셋째의 훈련 중 다친 허리와 발목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 캐일럽 선교사의 척추협착증이 온전하게 치료되도록
- 자녀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영육 간에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국내

조경근
브린다

선교현금 작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간증집과 영상을 감동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 2000선교본부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좋은 팀워크를 이루도록
- 선교 동원을 위한 사역과 선교 스킴 강의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 조경근 선교사가 KGLI 선교학 박사과정의 학업을 잘 감당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 학교를 전학한 첫째가 신앙과 학업에 집중하며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가도록
- 둘째도 학업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이보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에 성실히 임하도록

- 문헌 조사를 통해 타당하고 연구 가능한 논문 주제를 최종적으로 잘 결정하도록
- 지금 하는 사역에 지혜를 주셔서 시간 활용 잘하고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도록

국내

임선아

매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을 정할 때 주님의 분별력과 지혜가 부어지도록

- 연로하신 어머니의 허리와 무릎 통증을 완화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도록

국내

박영환 · 윤유희

선교역사 자료실과 책 출간 사역이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샬롬! 기도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셨는지 기록해두는 선교역사 자료실(아카이브)을 준비하며 원본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역에 두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며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사역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인 선교사’ 2편과 22년 1월 초 출간할 ‘지식선교 어게인’에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을 나누는 글을 쓰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갑니다. 이 책들을 통해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리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기도로 함께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희의 새벽을 깨워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셨고 특별히 6번째 수상의 생일선물 발송을 통해 그분의 강박함이 풀리도록 구체적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본부 선교사로 국내에서 살면서 재정후원자 모집에 대해 입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도움 자를 보내시어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들어 아내의 좌측 팔 관절과 저의 신체 오른쪽 마비로 고통이 심해집니다.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선교역사 자료실에 보관될 선교사의 원본 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도록
- 다카 AG 교회에 거둔단 무슬림 젊은이들이 나와 사도행전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 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국내

이경원

바리스타, 제과, 제빵 수업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동역해주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안산 M센터가 교회임이 알려지면서 무슬림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그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세워진 스타트리 협동조합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즈니스 장으로 여러 교육을 하지만 정말 이주민 친구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시스위로 삼촌은 복음을 받아들여 무슬림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아내에게도 방해를 받고 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늘 교회를 그리워하고 공동체에 오고 싶어 틈만 나면 이곳 스타트리에 방문해 함께 기도하고 위로를 받으며 쉬었다 갑니다.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스타트리에서 위로와 안식, 미래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어 수업을 통해 연결된 소자와 크리스만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 하는데 일이 맞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멀리 광주와 원주 등으로 자리를 옮겨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단한 노동자의 삶이 안타깝습니다. 속히 일자리를 잘 구하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알게 된 레자는 기독교에 반감이 있는 상태로 기도원의 정원사로 취직이 되었으나, 2주가 지난 지금 예배에 강제로 참석하는 것에 마음이 어려워 일을 그만두려 한다고 합니다. 레자를 만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고 기도원에서의 경험들이 레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 중 때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예배의 참석 등 우리의 요청에는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면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좇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미운 마음을 느낍니다. 사랑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바리스타 5기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친밀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제과, 제빵 수업이 친구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내

조은

집 계약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 미션퍼스펙티브스 사역 준비와 시작이 잘 되도록
- 관계망이 확장되어 삶의 변화가 있도록
- 부모님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국내

이준

땅이 팔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잔금 등 나머지 일들이 잘 정리 되도록

- 믿음, 지혜, 건강 주셔서 선교 훈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 구원(언니, 여동생 가정)을 위하여

국내

방갈렘
홍수아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후유증 없이 잘 진행되도록

- 청소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꿈을 품고 키울 수 있도록
- 훈련팀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모든 스태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로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 단기선교사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좋은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 가족 모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국내

허길
유진리

양지 온누리교회 YJ청년부 사역 가운데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하도록

- 둘째가 체력이 약하고 혈압이 높는데 정상 혈압이 되도록

국내

권은영

예배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도록

- 육신의 건강관리(척추관 협착증, 경추 디스크 장애)를 잘 하도록
- KGMLF(한국세계선교지도자포럼: 11/9~12)에서 통역 코디를 맡았는데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하이브리드(Zoom&현장)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잘 대처하여 유익한 연구 나눔이 있는 포럼이 되도록
- 코로나19로 힘든 주변 지인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국내

구리빙스톤
김마리아

성령 충만함으로 맡기신 외국인 영혼들을 잘 섬기도록

- 가족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것과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팔로 붙잡아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어 선교하는 김포 온누리M센터가 되며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이 넘치도록
- 선교사들과 각 예배공동체를 섬기는 러시아 · 미얀마 · 인도 교역자들이 함께 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 캄보디아 지체들이 공장 안에서 안전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날마다 큐티와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도록
- 충북 진천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통역을 위해 출퇴근할 때 안전 운전할 것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섬김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충북 진천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이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과 정착을 잘 하도록
- 러시아권 공동체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도 잘 적응하여 은혜를 많이 받도록
- 미얀마 예배공동체 싸잉삐 전도사와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와 있는 미얀마 난민들과 이주 근로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국내

임소망

다문화예배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도록

- 인천 온누리교회 모자이크 다문화예배(외국인 연합예배)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 예배를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외국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서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순모임을 시작하였는데 초대교회의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 9월부터 인근 대학의 동북아와 대만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는데 사랑과 신뢰가 쌓이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이어지며 동북아에 예배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 성경 통독, 큐티,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 받도록

국내

조종환 · 임미경

동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팬데믹으로 힘든 동역자님께 모든 고난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2년 가까운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신음하는 인류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백신 접종 사이트가 열리는 시간을 기다려 접속했지만 단 몇 초 만에 1만 명 정도가 예약됐고 순서를 기다리는 한 시간 동안 10만 가까운 대기자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타락으로 죽음이란 질병에 걸린 우리 인류가 떠올랐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부활 접종 소식입니다. 이 부활 백신을 믿음으로 접종받은 자는 죽음을 이기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소식을 접해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접수 순서를 따라 접종을 하듯 모든 인류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 진짜 백신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 접종을 하기 위한 생명의 줄이라면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긴 줄이라면 그것은 홀로코스트의 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 백신은 줄 설 필요도 예약할 필요도 없지요. 바로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세례를 받으면 되는 일이니깐요.

GBT본부 사역과 2000선교 FCBH사역을 하는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안양의 보금자리에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갔듯 이제 믿음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아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모든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저희의 “보금자리”가 “복음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도제목

- 온바이블팀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고 내년의 캠페인도 잘 준비되도록
- 온바이블 사역을 소개 받은 OSOM/H2H/H2K 수료 선교사들과 계속 동역이 이루어져 현지교회, 현지인과 함께하는 선교가 되도록
- 첫째가 휴직 기간 동안 소명을 발견하여 다음 진로를 잘 준비하고, 둘째가 강박불안증에서 벗어나 검정고시 준비 잘 하도록

국내

이훈 · 오지영

약속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MK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의 부모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비자발적 홈스쿨링’으로 몰리고 있고, 현지에서 이렇다 할 가이드 없이, MK(선교사 자녀)/ TCK(제3문화 아이들)들이 대학진학과 장기적 관점에서 진학과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제자 삼는 부모 엠 네트워크(D.M.P)’ 멤버들을 중심으로 저와 아내가 호스트를 하여 3번의 월요일 오후 온라인 줌을 이용해 단순히 정보만 드리고 세미나로 도전만 하는 것이 아닌, 아예 맞춤식 ‘장기교육 플랜’을 작성해 보시도록 코치팅과 소그룹으로 만남을 갖고, 더 원하는 분들은 ‘장기적 TCK 자녀양육/교육 공동체’(D.M.P와 G.O.P에) 연결해 함께하시도록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즌2를 진행하는데, ‘사춘기 이슈’, ‘성교육’ 등 TCK 현장을 지혜롭게 돕고 연대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 온라인 네트워크의 장은 더 넓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 커리어 가이드 컨퍼런스를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MK 스태프들과 힘을 합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세대 및 1.5세대’ 선배 MK들을 강사로 섭외해 후배들과 만나 성장 배경과 그 전문영역에서 어떻게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진솔하게 묻고 답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MK Care 실행위원이 되어 섬기게 된 첫 행사였는데, 쉽지 않았던 TCK 삶과 사역자 자녀로서의 삶의 기간을 지나 이제는 교수, CEO, 목회자, 영화감독, 국제기구 직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게서 성장한 모습이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마지막 마치는 사회자의 멘트가 귀가에 맴돕니다. “언젠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강사로 섬겨줄 그 날을 기도하겠다고...”

기도제목

- 늘푸른 가족 각자가 ‘약속의 말씀’을 매일 확인하고 약해진 체력과 정서적 지침에서 회복되도록
- 청년/대학생 MK들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돕고 세울 수 있는 시스템(쉐어 하우스 및 커뮤니티 센터)을 한 걸음씩 만들어 갈 수 있도록
- 자녀들(고3, 고2, 중2)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해주시도록

국내

비파 · 수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자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요 11:5~7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임선교사와 같이 저희도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몇 주 전 파키스탄 체류 시 같은 지역에서 사역했던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몇몇 분들은 비자를 거부하고 몇몇 분들은 비자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6개월 비자를 발급했기에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본부 리더십들과 그리고 현지 팀장님과 상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교회의 결정에 따라 비파 선교사는 선교단체 본부 행정 총무 사역을, 수금 선교사는 중보기도팀 사역을 2023년 6월까지 잠정적으로 하되 현지 비자 상황을 고려하며 추이를 살피기로 하였습니다. 흠투흠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길로 인도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왔는데, 파키스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서운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날에 지인께서 주신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란 책을 읽어가던 중 위 본문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으로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길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침묵하셨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날마다 위의 말씀처럼 고백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

- 파키스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거룩한 현지교회가 세워지도록
- 본부 사역에 지혜 주시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 선교사들의 비자 발급 상황이 열리고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 수금 선교사가 허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회복되도록

국내

채필립
조이폴

선교사의 삶을 잘 드러내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섬기도록

- 양지 비전빌리지 내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관> 공사가 잘 준공되어 교회와 선교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 와이미션 스쿨에서 조장으로 섬기는데 6명의 조원들이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이 일어나도록
- 첫째의 가정 이사 문제를 인도해주시고, 캐나다에 있는 둘째가 유치원에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국내

최서우
박은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촬영 제한의 장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 2021년 미디어 사역 포럼이 시작되는데 계속적으로 잘 발전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다음 세대 미디어 선교사들을 위한 스쿨도 시작하려 하는데 잘 준비되도록
- 내년 6개월의 장기선교사 훈련에 대해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 매주 설교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국내

김미정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부르심에 순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평안함으로 순전히 인도해주시도록
- 다시 선교지로 가는 시기도 주님께서 주관해주시고 예배와 말씀, 선교지를 품는 기도로 준비된 삶 되도록



온누리에서 ON편지

동아시아

동북아 이노아 · 오바다

성경 번역 사역을 통해 소수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현지 산골 지역에서 번역하는 팀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눌 때 벽에 걸어둔 표어였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번역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하지 못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을 때문에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성경 번역을 계속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세 달간 저희가 걸어온 길을 전해드리고 다음 기간의 계획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H어 로마서 번역문과 갈라디아서 번역문에 대한 자문 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하면서 발견한 수정 내용을 모두 적어서 H어 팀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근래에 이메일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져서 염려했지만 잘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H어 성경번역은 신약 132장이 남았는데 번역을 온전히 마치고 출판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세요.

이노아 선교사는 T어 팀과 함께 사도행전 11~28장 자문 점검을 마쳤습니다. 11월로 예정된 요한계시록 자문 점검을 마치면 신약 전체에 대한 번역을 마치게 됩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S어로 된 창세기 1~11장 번역문도 자문 점검했습니다. S어 번역팀을 위한 자문 점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노아 선교사는 H어, T어, S어 번역팀을 위한 자문 사역과 가르치는 일이 있어 시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창세기 1~11장을 오역하는 팀들이 많았기에 S어 팀의 번역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어 창세기 앞부분 11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S 민족은 동북아 남부에 거주하는 인구 십여만의 소수 민족이며 소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S어 번역팀이 주의 보호 속에서 계속 말씀을 번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에 비해 T어 번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좁고 위태로운 길을 걷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주께서 붙들어주셔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나아간다고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그래왔듯 주님만 따라갈 생각입니다.

요한 형제는 구약 본문 초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말에 레위기 초역을 마쳤고 현재는 민수기를 초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를 부탁드렸던 룻의 어머니는 의사의 처방에 따

라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건강이 상당히 회복되었으나 아직 좀 더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자세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요한과 룻에게 닥쳐오는 여러 시련이 마치 이 둘을 시험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처음 소개하는 르우벤 형제는 현지인으로서 성경 번역 전문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고 재능이 많은 믿음의 일꾼입니다. 이노아 선교사는 2006년 가을에 그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지금까지 그를 성경 번역의 길로 안내하고 훈련하고 도왔습니다. 그는 성경 원어와 여러 외국어를 상당 수준으로 이해하고 번역 경험이 많으며 몇 년 전에는 성경 번역 자문위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현지 국가에서 여러 소수 민족의 성경 번역팀들이 르우벤을 큰형으로 또한 유능한 선생님이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르우벤은 건강의 위기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아침에 몸이 이상한 것을 느꼈는데 주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라.’ 하는 생각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며칠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약을 받아 복용했는데 다행히 효과가 좋았는지 금방 회복되어 집으로 왔습니다. 현지의 말씀 번역 사역에 보석 같은 존재인 르우벤이 건강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번역팀들을 격려하면서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도 도와주세요.

지난 편지에서 인도인 번역 컨설턴트를 위한 구약 번역 세미나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동역자들이 내년 2월에 이 워크숍을 재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저희에게 구약 번역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진지하게 요청해왔습니다. 가서 이들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인도 정부가 외국인에게 관광과 방문을 위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세미나는 인도 현지에서 대면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 세미나와 훈련 워크숍이 성사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요. 여러분의 동역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이노아 선교사의 요한계시록 T어 번역이 잘 마무리되어 속히 신약 전권 번역을 마치도록
- 오바다 선교사가 요한 형제와 함께 사사기 번역문을 잘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 요한의 아버지와 룻의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고 말끔히 치유되도록
- 인도로 가는 길이 열려 구약 번역 세미나와 워크숍이 잘 진행되도록

친애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멀리서 문안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은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일상생활로 정상화되지 못했고 여행이 자유롭지 못해서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두 손 모으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사역자 일대일 훈련을 진행하고 매월 중순에는 주변 동역자들과 중보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 섬기는 일이 안전한 방역 가운데 열매 맺고 계속 잘 진행되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기간 중 준비된 현지 사역자를 위한 목양 자료를 집필하고 번역하여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복 강해’, ‘주기도문 강해’, ‘선교적 구원’이란 자료는 집필과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상황과 미션 전략’이란 주제로도 집필을 마치고 번역 중에 있습니다. 교재를 잘 제작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H학교 강의는 이번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내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선교사는 일대일 한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 교육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양육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제목

- 현지 목회자 재교육 사역을 통해 현지 목자들이 재교육과 재충전을 받아 회복하도록
- 일대일 사역자 훈련과 중보 기도 모임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목양 자료 보급을 위한 모든 집필과 번역 작업 가운데 함께해주시도록
- 에스더 선교사가 섬기는 한글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도록

동북아

석사라

S시를 축복하사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 어려운 환경이지만 S시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도록
- 말씀을 볼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깨달음이 풍성해지도록
- 신경을 다쳐서 몇 개월간 팔과 손가락을 못 쓰고 있는데 회복되도록
-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를 당한 석사라 선교사를 돌보는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동북아바나바
루디아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치료를 통하여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 빠르게 사역지로 복귀하여 현지의 사역 대상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 접경지의 파견 노동자와 이탈주민들을 돕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의약품 등이 넉넉하게 채워지도록
- 7월 체포된 현지인 자매가 속히 풀려나서 딸과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동북아바울
그레이스

모든 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캠퍼스(UCSD)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도록
- UCSD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학생들이 믿음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 바울 선교사가 목회자로서 아내와 동역하며 교회 안에서 사역할 기회를 갖도록
- 아들이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동북아

강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도록

- 11월에 실시한 학술대회의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시고 속히 이 환난을 끝내주시도록

동북아

J · Y 선교사

언어사역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가도록

살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늘도 구름도 이제는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의 무더위가 있어 곡식이 익고 과일이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우리 삶에도 결실을 보기 위해 견뎌야 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끝날 줄 알았던 바이러스는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조차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지금까지 알던 상식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내란 소식은 온 세계가 심하게 앓고 있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혼돈의 시간에 주님께 많은 질문이 생기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기에 그저 잠잠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각 나팔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묵묵히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처럼 지금 이 길도 주님께서 동행해주시기에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J 선교사는 언어 연구와 번역 작업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진전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른 J어 번역팀과의 협업이 결정되었고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해서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인데 저희의 타깃 언어와 약간 다르다 보니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방언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어떻게 의사전달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더 깊게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통찰로 말씀을 가감 없이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봐야 할 것을 올바르게 보고 놓치면 안 될 것을 놓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희 타깃 방언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협업의 경험이 이후 저희 타깃 언어 번역에도 잘 활용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팀에도 언어 조력자가 속히 연결되어 번역작업이 진행되길 기도해주시시오.

Y 선교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원 자격증이 나오기까지 아직 기다려야 하는데 남은 과정도 순전히 진행되어 무사히 발급받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후로 이 과정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행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고 저희는 저희의 행할 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으며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갑니다. 더 풍성한 내일의 결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오늘의 어려움을 곳곳이 견딜 수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영적 충만함과 육체적 건강을 주시고 주의 작은 강권에도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나라 확장과 복음 증거에 동참하도록
- 현지인 언어 조력자와 미팅 장소 등 활발한 번역사역을 위한 필요가 채워지도록
- 비자의 길이 열려서 선교사들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도록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올립니다.

저희는 그간 비자 문제로 미루어오던 온누리 선교사 재훈련 ‘흠투흠(H2H)’을 잘 마쳤습니다. 25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로 다른 사역지의 선교사들이 같이 강의를 듣고 소그룹으로 만나 토론도 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선교 현장에서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같이 공감하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며 기쁨과 사랑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그동안 11년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는 11년간 세 번 이사를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1년 만에 세 번 이사를 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저희는 불편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현재 월곳에서 지내는 것이 본국에서 출국 전 마지막 거쳐야 할 기도합니다.

아내의 심상치 않은 기침으로 이번 H2H 훈련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에어컨에 예민했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기관지가 온전히 치료되어 건강한 몸으로 다음 선교지에서 영혼 구하는 일에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사역지가 잘 결정되도록
- 최화평 선교사의 임플란트 수술이 감사하게 잘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도록
- 차하은 선교사의 기침이 멈추고 목과 오른팔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동북아

백두
한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도와 재정 지원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 C국에 곧 추위가 닥칠 텐데 그전에 땀감, 김장 등 월동을 위한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 첫째의 군 생활, 둘째의 대입 준비, 셋째의 학업 가운데 복을 주시도록
- 한라 선교사의 녹내장, 비자 문제, 논문 등 여러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주 시도록

몽골

몽흐새흥
젠드마

주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 코로나19에 걸린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도록
- 일대일 양육을 진행할 계획인데 양육자와 동반자가 잘 맺어지도록
- 몽흐새흥 선교사의 복통이 말끔히 낫고, 젠드마 선교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 등교를 시작한 두 자녀가 건강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몽골

장한결
임열매

코로나19 치료 중인 자녀를 고쳐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Y를 입양하는 수많은 절차가 은혜롭게 마무리되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 을 이루도록
- B 성경번역팀이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지혜를 받아 번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 임열매 선교사의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도록
- 동생의 소천으로 상심해 있는 O자매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의 남편 Z가 믿음의 주역이 되어 몽골에 다시 정착하도록

몽골

순종
온유

코로나19가 안정되어 몽골 교회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도록

- 주 1회 성경공부와 일대일 모임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 40일 성경읽기 챌린지 가운데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도록
- 주 3회 온라인 몽골어 수업과 현지 지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C 지역과 B 마을 교회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 두 자녀가 홈스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몽골

디도 · 뵤뵤

인간의 열심이 아닌 주의 도우심으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최근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코로나19 확산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모임 외엔 차근차근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2년간 전면 금지되었던 영적 모임들도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4개의 능력전도팀이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왕복 2시간 거리 내외인 지방으로 갑니다. 변변한 교통편도 없어 눈, 비를 맞으며 하이킹을 하고 진흙탕에 빠진 차를 밀기 일쑤입니다. 때론 만나질 걸려 찾아간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는데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가는 길의 차편이 잘 연결되길 3개 지역에서 양육 받는 열다섯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D 비전센터 사역은 비전과 확신을 갖고 시작했음에도 외부적으로 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000만 원의 선불 계약금을 주고 이전에 매입하고자 했던 3층 건물은 불법으로 증축한 무허가 건물이어서 진행을 멈추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주는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알아본다고 알아본 것이지만 외국인은 관공서 업무와 법적 문제에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말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의 잘못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지만 또한 사역자들 간에 서로 원망하고 서운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더욱 겸손히 서로 연합하고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이 싸움을 이겨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매입할 새로운 건물을 찾았는데 5000만 원 정도 재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디도 형제가 지방 개척에 사용할 차량 구입을 위해 지난 1년간 모았던 1000만 원의 예산도 기도 끝에 비전센터 건물 매입에 모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은 재정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D 비전센터를 통해 교회가 없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 형제는 현재 몽골에 돌아와 거주 비자 소속 중이고, 그동안 뱌뱌 자매 혼자 한국에서 시부모님을 도우며 일하느라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고 다시 잘 적응할 수 있길 기도해주세요. 현재 줌으로 몽골 M대학교 M국어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로 준비되길 함께 기도해주세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타날 능력이 우리에게 안식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지요. 모든 동역자님들께도 하나님의 능력과 안식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 매주 토요일 지방개척팀 사역을 통하여 현지 열다섯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 D 비전센터 매입에 필요한 재정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 디도 형제와 뱌뱌 자매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훈련 받고 성장해가도록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부흥할 수 있도록

몽골은 지금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매일 2000~3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 성도들의 가족과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확진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개척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 넘는 시간을 온라인으로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다시 모임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몽골의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누어 현지 가정을 방문하며 전도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장소를 확보해서 그룹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장소를 구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성령세례를 받으며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지 E교회와 센터로 활용하고자 했던 건물을 법적 문제로 매입을 못 하게 되어 다른 건물을 찾았지만 재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적합한 건물을 구할 수 있도록, 현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듣는 학생들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현지 학생 중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과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성장하며 부족한 학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

- 현지 지방개척 사역을 통해 전도와 양육이 잘 되어 지속적인 열매가 맺어지도록
- 성도들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속히 확보되도록
- 투석 중이신 아버지의 건강이 잘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도록
- 영적인 무기력함과 진행되는 일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몽골

J · H 선교사

사역의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 현지 청소년 큐티앱이 잘 개발되고 번역가, 청소년 사역자 등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 비대면 모임 가운데 성도들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 는 삶을 살도록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등교하는 네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몽골

양아브라함
천사라

몽골인과 한인 사역자들이 사랑과 아름다운 동역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대일 사역을 통해 충성된 제자들이 세워지고 세상 으로 나가도록
- 순모임이 정착되고 이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도록
- J 교회가 셀 리더 후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을 잘 이끌도록
- 입시 중인 셋째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건축학부에 입학할 수 있도록
- 양아브라함 선교사의 허리가 깨끗이 회복되도록

몽골

C · M 선교사

‘기도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도록

- G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이 일어나도록
- O의 어머니가 치유받고 더욱 강건해지도록

몽골

요한
S 선교사

한국에 있는 두 자녀가 주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 내년 여름에 있을 안식년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깨달도록
- J 교회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이 되도록
- 인천온누리교회와 진행한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 비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대만

김바울 · 손애희

사역적, 재정적 어려움들을 이겨낼 믿음과 은혜를 주시도록

얼마 전에 줌으로 진행된 ‘CCM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70여 명의 동북아 교회 리더들과 함께 앞으로 동북아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 방향을 코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동북아를 떠나 더 이상 동북아 사역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비대면 사역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동북아 교회는 한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2015년 ‘Mission 2030 대회’를 통해 1000여 명의 리더들이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열방에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 교회는 넘치는 의욕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지만 짧은 선교 역사와 선교 지원 및 관리의 소홀로 선교 사역의 실패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온누리교회의 선교 경험과 미국 남침례교회의 선교 경험을 아울러서 동북아 교회만의 선교 모델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의 중간에 ‘선교사 후원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교 사역에서 선교사 후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 함께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후원 무용론을 넘어 선교사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주시는 것은 맞지만 지원이 없어 선교사 중도 탈락이 많은 동북아 교회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와 함께 선교 후원 무용론을 가진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가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떨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교회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비로소 건강한 선교를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주셨던 리더분께서 ‘선교사 후원과 관리’에 대해 수감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CCM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에 맞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

가고 선교사를 열방에 파송해 더욱 건강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TIM-TAIWAN’이 정식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진행하며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동안 적합한 사무실을 찾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중화복음신학교의 구 건물의 한 방을 사무실로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TIM-TAIWAN’의 사역과 연합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CCM 선교적 교회 운동, 온누리 목회 및 선교 나눔을 통해 열방과 동북아의 H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도록
- 5명의 TIM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대만CGN, 대만 두란노, 대만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등과 온전한 연합사역을 이루도록
- 2022년 1월 13~14일 온누리교회의 선교대회를 통해 대만과 동북아권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도록
- 홈스쿨 중인 자녀들이 주님을 닮은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 대만의 백신 수급 문제가 해결되어 조속히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일본 후쿠오카에서 섬기고 있는 이형석, 서우숙 선교사가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저희는 심각한 코로나19 확산과 기록적인 홍수라는 환난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세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염병 방역보다 동성애와 성적 타락 및 각종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영적 방역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제가 섬기고 있는 프레이즈란도교회와 벤엘교회가 서로 깊은 협력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벤엘교회 목사님이 제가 ‘흙투흙(H2H)’ 안식년 재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저를 대신해서 설교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무나카다시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며 강단 교류, 연합 예배, 기도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의 영적 부흥과 구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례를 받았던 마쓰모토상이 그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지난 9월에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수료식 간증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생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성실로 영생과 행복을 만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쓰모토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옆집의 다시상 할머니도 성경 말씀을 최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신이 신사에서 배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상은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듣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

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을 잘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열려서 저희 집에 오실 때 맛있는 과자를 사가지고 오시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요즈음 교회 옆 산에 홍수 방지용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도저를 운전하는 토네상에게 전도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토네상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프레이즈란도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들을 때 매우 마음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토네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 이형석 선교사님 어머니의 치매 진행이 멈추고 다리에 힘이 생기도록
- 서우숙 선교사와 아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강건하도록
- 일본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가 일어나도록
- 코로나19가 끝나면 결혼 및 장례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 뱌엘교회와 이치박교회가 신뢰 속에서 동역하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도록
- 에어컨 수리를 하는 마쯔오상이 하나님을 알고 재일교포와 한일관계 회복에 쓰임 받도록
- 한국을 사랑하는 이시타상, 사토미상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 대면예배가 재개되었는데 모든 교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도록
- 교회 홈페이지가 잘 완성되어 설교와 성경 말씀이 구도자들에게 쉽게 전해지도록
-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동반자반을 끝낸 성도들이 이어서 지도자 반 양육까지 잘 마치도록

일본

이재석 · 백지현

H 지역이 복음사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강건히 서도록

기도의 동역자님들과 함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이웃 일본인과 친구가 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 한 가정이 아이와 함께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편까지는 만나지 못했지만 조만간 가족 모두를 초청해서 부부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팀사역을 하고 있는 김명훈 선교사님 부부의 개척 가정교회를 방문했고 홋카이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뵙고 현지 지역과 일본 선교에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선교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협력교회인 모바라예수사랑교회에서 2주마다 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야찌요온누리교회의 주일예배를 섬기고 일본동맹기독교단 130주년 기념대회를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일본 선교의 현장에 한 걸음 더 내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남은 기간에는 동경기독교대학 국제선교센터 일본선교 리서치 활동의 봉사자로 활동하며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하며 실행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일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실적인 제언을 하며 일본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및 기관, 개인에게 폭넓은 시야와 바른 관점을 제공하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성경 전문강사 스쿨과정과 창조과학 과정을 잘 배워서 성도들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 동경기독교대학 국제선교센터 '일본 선교 리서치' 활동을 통해 일본 선교에 기여하도록
- 백지현 선교사 어머니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도록
- 백지현 선교사의 약한 기관지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대만고종달
박미옥**아버지학교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 아버지학교에 참석한 형제들이 삶이 변화되어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 자녀가 집과 직장 등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감사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 박미옥 선교사가 갱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대만윤충성
김은유**대만에서 적응을 잘 마치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객가선교신학원에서 학업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예비된 동역자와의 만남을 인도하시도록
-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 윤충성 선교사 어머니의 당뇨 합병증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사는 가족이 되도록

일본이노우에마키
테루코**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과 더욱 친교하고 함께 신앙이 자라가도록**

- 온라인 모임 중지지만 성도들의 영성이 오히려 성장하고 가정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되도록
- 전도지를 통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일본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도록
- 가족 모두의 건강과 중학생 자녀가 학교생활 중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일본

강진아

영상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하도록

- 늘 깨어서 감사와 회개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 한국과 일본 교회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 고정관념 없이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기쁨 부어심이 있도록
- 강진아 선교사와 혼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일본

강호건 · 강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가족과 친구 분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All Nations Fellowship(ANF) 나가쿠테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 요청이 있어서 먼저 그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6년 정도를 Jeremy 선교사님께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목회를 장기적으로 하실 계획이 아니었던지라 적절한 때에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일본의 젊은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훈련하는 사역에 더 전념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거의 일년 정도 교회 장로들과 의견을 나누고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올해 말 담임 목사의 사역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의 장로로서 사역은 계속 할 계획이지만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Jeremy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한편 다음에 오실 분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재 제가 나가쿠테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도 많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직도 나가쿠테교회는 안정적인 예배의 장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사랑과 희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교회에게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

- 그리스도 성경 신학교의 기을 학기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인도해주시도록
- 교회의 장로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성도들을 잘 인도하도록
- 강호건 선교사가 많은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 강유 선교사의 두통을 치유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일본

박재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도록

- 계획한 일들과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 정상 수준으로 올라온 조카의 백혈구 수치가 잘 유지되어 건강해지도록
-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일본 CGNTV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일본박성근
김인옥**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박성근 선교사가 박사 논문 지도교수를 잘 만나고 논문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 이치카와복음기독교교회에서 개척하는 기후현 미야마 예배 처소의 리모델링 비용이 마련되고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때에 일본에 입국할 수 있도록

일본허드슨
안마리**오사카에 다민족 국제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 동북아 C 자매와의 만남이 지속되어, 거듭나고 자녀가 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 Z와 그의 가족, C · J 부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 부부가 비전으로 동행하고 세 자녀가 예배자와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일본김재경
박지혜**CGNTV 미디어 사역을 통해 많은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전해지도록**

-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며 살도록
- 한국의 양가 부모님과 고모님의 아픈 곳이 낫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 네 자녀가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잘 자라나도록



온누리에서 ON편지

남아시아

인도

바울 · 조이

비전과 협력 사역을 잘 실천하며 주 안에서 팀원 간의 신뢰가 쌓이도록

제이머쎄! 이곳은 아직 비 오는 여름날입니다.

지난 10월 서부 B 지역은 힌두 여신을 기리는 ‘두르가 뿌자’ 준비로 술렁였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을 느꼈습니다.

함께 팀 사역하는 A 목사님을 만나러 M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인도 북동부,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 건축헌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M 지역에 복음이 잘 전해지길 두 손 모아주세요.

함께 팀 사역하는 목회자 가정과 ‘팀 빌딩을 위한 리트릿’을 진행했는데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팀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R 형제는 기독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다리를 살리기 위해 진찰했지만 절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해서 지난달 수술을 하고 회복 중입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치료 과정과 회복과 재활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울 선교사의 눈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엔 노안으로 인한 백내장인 줄 알았는데 눈 안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 시야가 흐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에 나누어 시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실수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 J, S, U와 TEE 성경 공부할 장소를 예비해주시도록
- R 형제의 몸과 마음의 회복과 그의 생활을 위해
- 바울 선교사의 눈 치료를 하는 의사의 손을 지켜주셔서 레이저 시술이 잘 되도록

인도
네시아

강새롬

JIU 공동체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델타 변이형 감염 폭발로 인해 지난 6월 보충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고 신학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교직원들도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사 일정 이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동대학교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의 일환으로 학습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부분적 대면활동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그간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캠퍼스와 기숙사 생활 내규에 잘 순응하고 안전하게 새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올해는 17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현지인뿐 아니라 티모르, 아프가니스탄, 한국에서의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본고 생활이 교육의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복음화에도 아름답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8월에는 구약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현지어가 아닌 영어로 통독하기가 쉽지 않지만 열정적으로 이 시간을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초중고의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었고 M 유치원에서는 세 차례의 교원 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두란노 현지 재단(FDI)은 CGNTV와 MOU를 체결하여 인적 교류 및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마스관 기숙사 건축이 시작되었고 야외 체육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기도제목

- 기숙사와 야외복합 체육시설 건축 및 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 JIU 공과대학 및 종합대학 인가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 전 교육기관 교사 및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잃지 않고 이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도록

피부암과 골수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HD 형제는 약 10일간의 입원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항암 효과로 인해 고름과 피가 나오던 상처 부위는 완전히 말랐고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식욕이 올라 얼굴에는 살이 올랐고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HD 형제는 비록 침상에 있지만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HD 형제와 그의 가족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실로 HD 형제와 같은 지역 출신인 MM 형제가 복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현지인 동역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핫도그를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동네에서 판매하는 것과 더불어 소셜미디어 시장을 통한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되어 HD 형제 가정의 가계와 사역 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장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자립 모델이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공급된 백신이 보편화되어 외국인인 저희에게도 접종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HD 형제의 항암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MM 형제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게 되도록
- 분식집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도록

인도

벤자민

인도 정부의 사역 방해를 막아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어 찬양하며 복음의 길로 계속 전진하도록
- 많은 성도들이 떠난 상황인데 교회 개척의 문이 새롭게 열리도록
- 장모님의 암이 잘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도록

인도

J 선교사

직장을 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문이 열리도록

- 교회 건축 공사가 제때 완공되도록
- 모든 동역자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인도

제니

양육 중인 P가 예수님을 믿고 집안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 현지 친구 P가 성경 공부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정다니엘
안나**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 G 교회 수련회와 R 형제와 P 자매의 세례를 인도해주시고 A 사역자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 S 목사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H 형제 가정 교회와 J 목사 친교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 부모님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 자녀의 신앙이 성장하고 형제들 가정이 구원받도록

인도

존 데이비드

주의 강하신 팔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주시도록

- 코로나19로 수요일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교회 문이 열려 주일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 성도 한 분이 코로나19로 우리 곁을 떠났는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도록
- 둘째 자녀에게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라오스

끼에우 · 프엉

비자가 순적하게 발급되고 장기적으로 머물 곳을 예비해주시도록

생명의 학교와 청소년 교도소 One Class One School 사역이 온라인을 통해 계속 진행되도록 담당 사역자들에 대한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직접 방문이 어려워진 청소년 교도소는 6월에 온라인을 통하여 영어교실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M 주에서 다시 시작된 영어교실은 9월에 S 주 청소년 교도소로 확장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뻐던 것은 사역자 C가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태하심에 실수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의 의지할 반석이 되시도록 사역자 C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출소한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된 선교단체 센터에 새로운 형제 두 명이 들어와 함께 생활하며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과 지식이 없기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을 위해 적절한 말씀 교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돕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나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 주심을 따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생명의 학교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가정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였습니다. 때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를 섬기도록, 아이들을 통하여 보호자와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 첫째 자녀가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 지난 8월 둘째가 태어나 돌봄과 양육과 집안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가족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 60일마다 연장할 수 있었던 COVID 임시비자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비자의 순정한 발급과 장기적으로 머물 곳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온유 · 최열매

복음으로 인해 핍박당하는 가정을 돌봐주시도록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아프간 사태 등 가슴 아픈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며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두 달간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G 학원의 두 번째 학기에 53명의 학생을 보내주셔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며 아이들과 비대면 온라인 아웃리치도 진행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단기 선생님이 코로나19 시기에 잘 들어와서 격리를 마치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칠 선생님 가정도 이사하고 잘 정착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감사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뇌수막염으로 생사를 오가던 소년이 성도들의 기도로 회복되면서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미신의 잘못된 관념으로 수술을 거부하던 가정이 교회의 권유로 수술을 받아 더 큰 어려움을 면하긴 했지만 수술 중 뇌 신경을 건드리면서 편마비가 왔습니다. 이곳 목사님의 소개로 고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아 있는 기능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니 운동 치료를 하면 좋을 희망이 보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몇 년 전 흑시 모를 편마비 환자를 위해 사두었던 의료 기구를 이 소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텐데 잘 치료 받아 회복되고 치료 기간 동안 이 아이와 가정의 믿음이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잘 자라나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서길 소망해봅니다.

기도제목

- 언어센터에 새롭게 중국어 강의를 오픈했는데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현지어로 소통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현지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추방당한 9가정을 위한 장기적인 거주지가 준비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 베트남에서 홀로 공부하는 둘째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신 상황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협력 선교사님께서 미리 보아둔 집을 본 뒤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집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약하고 입주하였습니다. 변두리 지역이지만 국립대학 근처이고 사역지인 센터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합니다.

우기가 지속되고 있어 한낮에는 34~38도 정도이지만 비가 내리고 나면 온도가 떨어져 더위는 견딜 만합니다.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면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합니다. 조금 힘든 점은 가끔 전기가 나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먹거리 문제인데 저희 부부는 현지 음식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동북아식, 태국식 마트가 있고 필요한 것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해서 시내는 일부 폐쇄하였고 식당과 카페는 영업을 중단했고 학교와 공무원들은 재택으로 수업하고 근무합니다. 거주할 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팬데믹 상황도 다스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 E 센터의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 P 센터의 학생들에게 말씀과 한국어를 바르게 가르치고 오픈을 앞둔 E 센터의 교육 관련 커리큘럼과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 현지어를 잘 습득하고 첫째 자녀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잘 찾도록
-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

필립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과 강의를 잘 감당하도록

- 리더십 훈련생들을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사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 TIM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리트릿, 선교여행 그리고 결혼 예비학교 강의를 잘 진행하도록
- 며느리가 순산하고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도록

인도네시아

김폴린

주님의 공의가 함께하여 기부 받은 토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 비자가 잘 진행되도록
- 현지 교단의 교회 개척 세미나를 통해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 기부받은 현지 토지에 대해 거짓 서류로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는데 속히 해결되도록

인도네시아

U·Y 선교사

Y 사역에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역 교회를 도울 지혜를 주시도록

- U 선교사가 하는 공부를 통해 지역 교회를 도울 지혜를 얻도록
- Y 선교사가 창조과학회의 강의를 수강 중인데 창조주의 뜻과 지혜를 깨닫도록

인도네시아

제자
임재

파송된 자매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차세대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 파송된 두 자매가 일 년 동안 새로운 지역을 섬길 때 주님과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 공동체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 리더십이 세워지며 주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도록
- T 사역자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주셔서 직원을 섬기며 식당 운영을 잘하도록
- 가족들이 팬데믹 가운데 안전하며 구내염(제자), 잣은 복통(임재), 아토피(자녀)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인도네시아

김데이비드
김아비가일

개척 사역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준비하는 신학과 일에 지혜를 주시도록

- 교단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개척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 신학, 침술 등 몇 가지 일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레
이시아

C · M 선교사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팬데믹 동안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현지어로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선교사 사모님들과는 한국어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곳에 온 후로는 주님이 자연스럽게 난민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주석도 많이 참고하는데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귀한 주석을 쓴 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계의 수많은 자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5년째 공부하고 있는 J는 팍팍하고 무미건조한 난민 생활 중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 신학교를 소개받아 성경을 배우게 된 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M과 E는 새벽 6시 전에 집을 떠나 3시간 걸려서 학교에 옵니다. 제가 아침도 못 먹고 땀 흘리며 오는 그들을 위해 소금 달걀을 2년 동안 간식으로 주었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그 소금 달걀과 학생들과의 교제가 너무 그럽다고 합니다. 저희의 헌신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많은 교인에게까지 도움을 준다는 소식은 많은 힘이 됩니다.

- | | |
|------|---|
| 기도제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그룹 리더 훈련을 통해 리더들을 잘 훈련해서 건강한 셀 그룹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 20명 이상의 학생과 영어 교사를 보내주시고 내년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 M 선교사의 골반과 허리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
|------|---|

미안마

이상오 · 박선희

정치 경제적 불안이 잠잠해지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밍글라바!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개선된 가운데 최근 국민통합정부에서 소수 종족 무장단체와 시민방위군들이 군부에 무력 저항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지적으로 총격전과 폭발물 공격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도 민가를 불태우고 무고한 시민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과잉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쌀, 밀가루, 식용유, 휘발유 등 생필품 가격이 20~50% 올랐고 환율도 50% 넘게 상승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매주 토요일 T 교육센터에서 아이들 방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놀이, 카드 게임, 키보드 연주 등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상황이 허락된다면 교회 청소년 모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변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나라를 위해 오전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넘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길, 그런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정금같이 단련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고 날로 오르는 물가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 박선희 선교사 어머니가 담관종 수술 후 산소호흡만 지속하고 회복이 안 되는 상태인데 건강하게 잘 회복되도록
- 고2 자녀가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조언과 도움을 줄 선생님을 잘 만나도록

Y 지역에서 『예수의 사랑』 책 작업과 휴식을 하려고 했는데 시내 다섯 곳에서 폭탄테러와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비용과 은행 수수료, 기름값 등 물가가 모두 올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며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무너진 듯하나 소망의 복음을 잡고 있기에 다시 회복의 노래를 불러봅니다. 이 가운데 현지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여름 고아원 건축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아원 자립을 위해 커피와 과일 묘목 심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I 교회와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루빨리 교인들이 코로나19를 딛고 돌아와 함께하길 기도했습니다. G 교회도 다시 청년들이 모이길 소망합니다.

재입국한 뒤 한국에 간 다른 선교사님의 차를 빌려 사용하다가 돌려주어야 하는 때에 S 교회 성도님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차량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필요함과 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창욱 선교사의 임플란트가 빠져 현지 치과에서 재이식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정 등 여러 문제로 틀니를 하게 됐는데 잘 치료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소리엘
소리샘

성경을 깊이 이해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땅의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도록

-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무슬림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 가짜 땅문서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속히 해결되고 재판을 미루고 있는 재판관을 변화시켜주시도록

인도네시아

부름
받아

C 센터가 완전하게 오픈하고 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C 센터가 제대로 오픈되도록
- 아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해주셔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 받아 선교사의 오른팔 석회성 건염과 오십견이 한국에서 잘 치료되도록

인도네시아

다윗
하나

도서관 건축 비용과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되고 비자가 잘 마무리되도록

- 도서관과 방과 후 수업을 위한 행정적 문제와 재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채워지도록
- 이슬람 세력이 강한 이곳의 아이들이 책을 접하며 주님을 알아가도록
- 장기 5년 비자와 학생비자가 잘 마무리되어 서류와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이기쁨
문한나

현지로 귀임하는 비자가 잘 나오고 이기쁨 선교사의 다친 곳이 치유되도록

-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학업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도록
- 내년 1월 현지로 귀임을 준비 중인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잘 발급되지 않는 신규 비자가 순적하게 발급되도록
- 이기쁨 선교사가 일을 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쳤는데 속히 치유되도록

인도네시아

이우림
김조은

코로나19로 황폐해진 S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어루만져주시도록

- S 성도의 폐렴과 N 성도의 위궤양이 완치되도록
- 코로나19로 가족과 일자리를 잃은 마을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 김조은 선교사가 림프절에 이상 모양이 발견돼 수술을 받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방글라
데시

유에녹 · 서에스더

영혼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 생명 되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샬롬! 저희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O 지역의 교회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성도들의 구체적인 형편과 기도 제 목 등을 파악하고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성도 개개인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에는 참석하지 못해도 이 기도 시간을 위해 꼭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늦게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다시 한번 분명히 복음의 진가를 담아내는 2부 예배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 본받아 양 떼의 형편을 더욱 살피고 중보하며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현지어 버전 제작을 위해 CGNTV에 낼 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 제작사들이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해 제가 그동안 협력해온 양육 및 출판 전문 기관과 자체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청지기로서 시간을 할애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O 지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하고 성도들을 알아가고 사역 방향을 고민하고 의논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저희가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잘 적응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천국이 되고 그 사랑이 이 땅의 영혼들에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기도제목

-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잘 섬기도록
- O 지역 교회 사역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선포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 신학교 수업과 무슬림 사역자 양육을 통해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지고, 어학원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미디어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베트남

정닛시 · 조로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감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도록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님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저희도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남부 지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H 시의 모든 시민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서 저희도 혜택을 받게 되어 1차 접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 계속 기도해왔는데 환경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아파트 전 세대에 한 명씩 대표로 PCR 검사를 하였고 며칠 되지 않아 H 시 시민들 전체가 PCR 검사를 받기도 하는 등 정부에서 분주하게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청년이 봉쇄로 인해 거처가 일정치 않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식료품과 거처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던 N 자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평소 김치를 담가 섬겨왔는데 록다운 상태에서 갑자기 쌀을 선물한다며 잠시 저희 집 앞에 다녀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N 자매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일대일 양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기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 문화 사역에 귀한 동역자들과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 하나님의 일들을 교묘히 방해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나아가도록
- 40년째 계속되고 있는 종교 정책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막힌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곳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몇 달째 매일 밤낮없이 내리는 빗줄기에 에어컨 없이도 선선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학교 내에도 급속도로 번져 스태프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들, 현지 직원마저 감염이 된 상태이지만 그 와중에 학교와 KLVK 한국어 수업은 온라인으로 개강해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검사 키트는 현재 수입이 금지되어 개인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한인회와 대사관의 도움으로 신속한 항원 키트를 구입할 수 있어서 주변 이웃들과 나누려고 좀 넉넉히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놀이도 하며 식사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동역자께서 궁금하셨을 텐데 기존에 준비했던 2021년 신규 세종학당 선정에서는 신청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아쉽지만 최종적으로 탈락했습니다. 기존에 설립했던 유한보증 회사는 폐지하고 비영리법인 단체로 재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통행금지로 NGO 설립을 위한 과정이 매우 더디지만 분주함은 내려놓고 방향성을 바로 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시시오.

아이들 방학 중에 엄마 아빠가 게을리지며 가정 예배를 하루 이틀 빼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 우리 오늘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막내가 예배라는 소리를 듣고는 소파에 쏘르르 달려가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아멘” 외칩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엄마 아빠는 괜히 민망한 마음에 “오늘은 늦었으니까 자자.” 큰소리를 치고는 마음 한편에 돌덩어리를 그대로 안고 아이들을 침대에 눕힙니다. 엄마 아빠가 정신없어 예배를 놓치는 때에도 아이들이 하나님과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아 다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코로나19 소식에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피신 두 날개 아래 모두 강건하시기를 보호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오스

박은진

G 학원이 복음의 센터로 세워지고 A족이 구원을 얻도록

- 새로 합류한 현지인 직원들이 예수님 믿고 동역자로 서도록
- 중국어 교사 Y 자매와 영어 교사 S의 건강과 수업 준비, 현지어 배움에 지혜를 주시도록
- 가족의 건강(아버지 폐렴 완치, 어머니 체중 회복), 큰오빠의 구원 및 가족들과 관계 회복, 작은 오빠의 간암을 치료해주시도록

미얀마

D · Y 선교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국 일정과 필요한 사항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 언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잘 습득하고 지혜를 주시도록
-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미얀마

M 선교사

정국이 안정되고 선교 센터 건축과 교회 건축이 무사히 진행되도록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 센터와 교회 개척이 잘 이루어지도록
- 불안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속히 안정되도록

베트남

시므온

안나

예비하신 곳으로 이사하고 현지어 찬양과 율동 사역을 재개하도록

- 2022년도 팀 하노이 구성원을 준비해주시도록
- 코로나19로 미뤄진 현지어 찬양 녹음, 율동 영상 제작 등의 사역에 현지 스태프들이 잘 순종하며 따라오도록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년 1월 초 이사할 수 있도록

베트남

H 선교사

제한된 상황에서 지혜와 유연성을 갖고 사역하도록

-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 처형이 둘째 임신 30주 차에 코로나19에 걸려 위중해 급하게 수술을 통해 1.3kg의 아기를 낳고 2살 된 첫째도 확진이 됐는데 엄마와 두 아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태국

리차드 · 샬리

선교동원 블로그를 통하여 선교동원의 좋은 통로가 되도록

샬름! 시골교회에서 진행하였던 여름성경학교와 창조숲학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여름 ‘예산시골-여름성경학교’는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골교회 개척 20년 만에 처음 여는 성경학교여서 그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더욱 긴장된 여름성경학교였고, 참여하는 어린이들 대다수가 다문화가정 자녀였기에 더욱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따뜻한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이후에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새로이 두 명의 어린이(정선, 희준)가 주일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른 예배시간에 동시에 진행되던 주일학교 시간도 오후로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어린이들만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프로그램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맞춤식’ 주일학교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아직까지 여름성경학교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석에는 ‘창조숲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어린이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숲과 자연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연을 보면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선교동원을 알리기 위한 블로그를 만들려고 합니다. 블로그에는 저희들의 사역 소식(METC, 여성경이아기, 가족 소식), 세계 선교지의 상황, 교회 개척 경험과 강의, 개인적인 영성일기, 경건서적 독후감 등을 기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후원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선교동원의 더 나은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

- 비자 신청 절차가 복잡해졌는데 순직하게 진행되도록
- 선교동원 블로그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후원자들과 더 많은 소통이 이뤄지도록
- 예산 시골교회의 어린이 주일학교가 계속되고 부흥되도록

파키스탄

Joseph Lee · Shiny Choi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지갑, 열쇠, 여권을 찾고 너무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녀, 가족을 찾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자녀를 잃은 부모가 한순간도 그 자녀를 잊지 못하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초대하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15명의 새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했습니다. 매몰된 건물에서 테러범의 포로로 잡혀 있던 생명을 구한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순장들도 매번 친구 초청 집회를 통해 자신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 자신들과 순모임을 하며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영혼에 무관심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람 낚는 어부로 성장해가도록, 새롭게 연결된 친구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주의 제자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친구 초청 전도 잔치에 온 새 친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전도 훈련을 통해 새 친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과정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 두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 겨울방학에 둘째가 학교로 돌아가려는데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인도해주시도록

안녕하세요! 교회 예배처소 바닥이 나무인 데다 오래되어 위험하다 싶었는데 드디어 입구에 올라서는 순간 우지직 소리와 함께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다친 이가 없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고치는 일이 급선무였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나님 어찌합니까’만 외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무화과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나 궁금증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길래 내친 김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에서도 확인한 결과 정말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어 무화과이고 길이가 1~1.5mm 크기의 아주 작은 무화과 말벌이 배꼽을 뚫고 들어와 알을 낳고 수정을 도와 공존하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어 무화과라 불린다고 하지만 실상 꽃은 열매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화과 말벌인 말씀(성령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꽃이 없어 별로 관심 없는 나무이겠으나 무화과 속에 꽃이 있어 무화과 말벌이 열심히 수정을 도와 열매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확 이해되었습니다. 말씀은 정말 오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남편은 청년들과 함께 커뮤니티 서비스로 가정방문을 하며 변기를 설치하지 못한 가정에 설치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며 기회를 확보해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하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리서치한 결과 아직도 50여 개의 가정이 변기가 없거나 새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난한 농민들에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팬데믹은 가난한 이들을 더 어렵고 힘든 삶으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께 오늘도 한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며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각 지역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센터가 마련되도록
- 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열악한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 가족 모두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충성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베트남정갈렘
박수아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의 문과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 박수아 선교사의 피부 소양증이 회복되도록
-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 출국의 때와 과정을 인도해주시도록
- 가정에 태의 문을 여시고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주시도록

베트남이삭
리브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에게 순종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몇 달째 록다운으로 해외 외에는 다른 사역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어렵고 매일 기다림의 시간인데 주신 시간을 잘 보내며 준비하도록
- 가정의 주인 되어 주님과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을 흔드는 모든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들이 떠나가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스리랑카Joseph
추행란

차기 선교 사역이 잘 준비되도록

- 비자를 잘 받고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선교 사역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 추행란 선교사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 두 자녀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스리랑카데이비드
베라

A 국제 학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 비자 신청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 A 국제학교의 대면 수업 준비 과정과 선생님, 학생,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경제 상황이 나빠져 물가의 상승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이성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 사역을 지속하도록 상황을 다스려주시고 마음과 몸이 힘든 현지인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 연말까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영과 육 그리고 정서에 쉼과 유익의 시간이 되도록

네팔

S · M 선교사

현지 복귀와 성경 번역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지난 5월, 25년 넘게 함께 동역해오던 형제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저희 번역팀 중에서 자신의 언어를 가장 맛깔나게 사용할 줄 아는 형제로서 번역된 말씀이 마치 자신의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주곤 하였습니다. 그런 형제이기에 번역 프로젝트의 모든 현지인 동역자를 포함하여 저희 단체의 모든 분이 형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가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있지만 최근에 다시 현지에 있는 D, M, G 자매 등과 함께 줌으로 번역 점검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이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이들의 말로 소통하며 이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의 시간을 공유하며 동역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여름 미국에 있는 한 제자로부터 히브리어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겨우 초보 딱지를 뗐는데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것이 분에 넘친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동안 배운 히브리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시 나중에 구약을 번역하는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동파망어로 신약을 봉헌한 이후 현지 형제들 스스로가 구약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구약 자문위원으로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 12월에 현지로 복귀할 예정인데 M 선교사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 줌으로 진행 중인 동파망어 역대상하, 민수기 번역 점검에 집중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첫째의 결혼식이 은혜 가운데 치러지고 둘째, 셋째, 넷째가 귀한 믿음의 멘토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도록

캄보디아

H 선교사

S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즘 이곳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의 질, 의료 시설의 부족, 고가의 진료비 탓에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교사님 두 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곳에서 치료가 어려워 에어 구급차로 한국으로 후송되어 쉽지 않은 치료의 과정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한인 선교 사회 단체방에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여 총 인구의 80%가 넘게 접종을 마쳤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에 이어 부모님의 동의하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부스터 샷 접종을 마쳤고 일반인 대상의 접종도 시작돼 S 교회 사역자들과 무지개 유치원 교사들도 부스터 샷을 마쳤습니다.

학생들 수업은 등교와 온라인 수업(지역 감염이 심한 지역)을 병행하여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등교 후 백신 접종을 마친 돌과 감염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결정들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을 다니다 보면 부모님들의 염려로 집 밖에 나와 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마을이 아주 조용합니다. 속히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 기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들을 기대합니다.

기도제목

-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 유치원 원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사역들을 섬길 수 있도록

2주 동안 봉쇄령이 내려지자 처음엔 비축해둔 식료품으로 식사도 해결할 수 있고 밖에 나가 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시간이 절약되기도 하여 말씀을 통독하며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주가 다 되어가자 식료품도 떨어져 가고 록다운이 끝날 기약도 없어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봉쇄가 연장되면서는 화가 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득 드는 마음이 누가 이 시간을 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내 계획과 시간과 상식에 맞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중에 감사하게도 학교 졸업생 형제를 통해 어려운 현지인들에게 공동체에서 쌀과 식료품을 전하며 현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학교는 온라인으로 3학기 학사가 운영되었고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각자 부르심을 확인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예비하신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모여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주세요. 시내를 벗어나 ‘쓰레기 마을’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 젊은 엄마는 남편이 끝던 르멕(리어커)을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만으로도 힘들 텐데 생계를 위해 남편의 고통의 흔적을 껴안아야 하는 아이 엄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기가 되어 집마다 물이 고여 화장실과 침대가 같이 있는 등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함께 풀어가야 할지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기도제목

- 열악한 의료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사역자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도록
- 가족들의 언어학습에 지혜를 주시도록

스리랑카

장은혜

유학생 S와 N의 믿음이 성장하여 크리스천 리더가 되도록

- 유학 온 두 자매 S와 N이 학업을 잘 마치고 돌아가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고 말씀 읽기와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성장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 부모님의 건강과 본국 사역 기간에 영과 육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네팔

김영미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G 마을 교회와 교실 재건축이 잘 진행 되도록

-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교육센터와 마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 G 마을의 교회와 방과 후 교실 및 문해 교실 재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 A 형제가 계절성 급성 파누베염으로 눈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 현지 사역자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성령 충만함으로 협력하도록

캄보디아

B·K 선교사

선교 현장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도록

- 비타민C 선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은 것을 실천하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도록
- 결혼한 둘째 자녀가 하나님이 주인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 소규모 이동 진료를 통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캄보디아

아굴라
브리스길라

S 망고 HACCP 인증이 속히 진행되고 방과 후 공부방을 인도해주 시도록

- 전기공사업체 사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S 망고 HACCP 인증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 방과 후 공부방의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마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확장되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파키스탄

김빌립
이사라

사역 확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열매 맺도록

- 두 곳의 주일학교와 S 주와의 협력 사역에 풍성한 은혜와 리더십의 열매가 주어지도록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비자 및 검진을 위한 일정이 잘 진행되도록
- 주일학교와 기술학교의 타지역 협력 사역에 필요한 인력 재정 환경이 채워지도록



온누리에서 ON편지

중동

터키

엄바나바 · 이사라

새로운 사역 현장에 잘 적응하고 하루속히 시리아 지역에 평화가 임하길

안식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던 요르단 거주 시리아 친구 M의 고향마을에 최근 들어 폭격이 몇 주째 계속되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속히 정부군의 폭격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요르단에 살고 있는데, 시리아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그곳 소식을 듣고 심장이 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시리아에서 최초로 시위가 시작되었던 곳이고, 수시로 폭격이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에는 정부군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강경한 반군들을 다 모아서 북쪽 마을로 이동을 시켜버리고 조금 조용해졌는데, 또다시 폭격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시리아의 평화는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는 강경 반군들을 모아놓은 시리아 북쪽 마을 캠프에 불이 나서 두 살 난 어린아이가 많이 다친 일이 보도되었는데, 아이의 언니는 화재로 사망하였고, 그 아이는 화상이 너무 심하여 터키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아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친구 M의 고향마을에 폭격이 멈추고 필요한 식품과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터키에 가셔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하여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영육 간에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제 다음 편지는 터키에 도착해서 보낼 것 같습니다.

기도제목

- 시리아의 평화가 조속히 이루어져, M의 고향마을 폭격이 멈추고 필요한 식량과 물 등 생필품이 공급되도록
- 저희 부부가 터키에 무사히 입국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터키에서 감염되지 않고 새로운 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 연로하신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한국에서 지내게 될 첫째와 둘째가 신앙생활을 잘 하며, 대학생활 마무리를 잘하도록

K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 남학생입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저희를 잘 따르는 학생이고 오랫동안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전도의 감동이 와서 식사를 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에 대하여, ‘죄의 구속’에 대해서 전도를 하니 참으로 진지하게 듣더니 “이런 이야기는 처음으로 듣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약간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K가 성령님의 깊은 감동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J는 이곳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앞둔 대학교 영어 강사입니다. J는 작년에 건강이 나빠져서 힘들어할 때, 아내와 함께 방문하여 이사야 53장 말씀을 나누며 치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아져서 미국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초청하여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복음을 나누었는데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선물로 준 소책자를 잘 읽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미국인이 가톨릭이었는데, 최근에 미국인 아버지께서 중풍병을 얻고 회복이 없자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슬람교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Iz 도시의 저희 B 교회 성도인 S도 약 30년 전에 이 나라의 여성과 결혼하면서 이슬람교도가 되어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S가 병에 걸리자 다시 회개하고 원래의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였고 부인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J와 남편이 될 미국인도 다시 주님의 손에 잡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도록 아뢰어주시시오.

기도제목

- 주의 능력으로 장모님의 요관을 재생시켜 주시고 신장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 SNS로 교제를 시작한 영혼들과 복음의 교제와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 예수를 떠난 가정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터키

손충성
송이레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 페르시안 모임이 이란 현지인 사역자와 팀을 이루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 교회 안에 최근 새롭게 전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중 모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이 모임이 앞으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 교회 안에서 교회 개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두 개의 모임이 성장해서 이제는 독립교회로 개척됩니다. 터키어 모임 한 개와 스페인어 모임 한 개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리를 잘 내려서 그 교회를 통해 새로운 교회들이 또 세워지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터키

조햄릿
강에스더

만남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심이 있도록

- Y가 이슬람이 강한 사카리아 도시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 Y가 하는 미용실을 축복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 P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도록
- N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좋은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 M 가정과 좋은 만남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가정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 O와 B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터키

이영광
이찬양

치유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 두 형제가 복음을 듣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 아프간 가정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통해 구원받도록
- M 형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이 잘 진행되고 치유받도록
- 교회 사역에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어주시도록
- 둘째가 11월에 터키에서 결혼하는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 앞에서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며 살아가도록

터키

조하늘
박별

준비된 새 영혼들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둘째가 뱃속에서 건강히 잘 성장하며, 좋은 병원과 의사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 주님 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도록
- 늘 성령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터키

김바나바
김드보라

현지 교회에 일대일 제자 양육이 시스템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 개인적으로도 일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을 통해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 첫째의 근무지가 포항에서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거주할 집을 잘 구할 수 있도록, 둘째가 제대할 때까지 군 생활 잘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삶의 방향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터키

방샘물 · 김온유

보내신 사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며 나아가도록

이곳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방역을 지키면서 대면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대외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도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월세도 1.5배 정도로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보내신 사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며 나아가려 합니다.

본국에서 2개월 동안 베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2주간의 자가 격리,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외적인 제한들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가 격리 때는 그리웠던 다양한 한국 음식으로 먹여주셨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개별적인 만남으로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했던 영어학원 수강과 고등학교 준비, 발목 수술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역자와 동역 교회와 친밀한 영적인 관계 속에 있기를 아뢰며, 현지에서도 계속 기도의 끈을 이어갈 수 있기를 아뢰입니다.

재입국하자마자 온누리 청년팀과 함께 한국에서 함께 준비했던 랜선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현지 교회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이를 동안 RC카와 출애굽기 보드게임과 성막 만들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즐겁게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이러한 랜선 아웃리치 경험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자녀가 고등학교 과정을 잘 감당하도록
- 아내의 제빵과 한식 사역에 아버지의 인도함을 잘 받도록
- 페르시아어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 터키의 다른 지역 교회도 한국 아웃리치 팀이 연결되어서 난민 청소년들에게 이 세대 속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14개월 만에 이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한 마음으로 마치 한두 달 전까지 이곳에 지냈던 느낌을 받으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계획된 일정에 따라 MK 청년 D와 H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결혼 문화를 경험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저의 재적응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앞으로의 발걸음에 많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 도착하여 기도하던 중 마지막 시간까지 이곳에서 함께 동역할 마음을 주셨고 동역자들의 격려와 지지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 집을 찾고 물건을 채우면서, 청소하고 물건을 빌려 받기도 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했던 모임들이 어느새 5명의 청년으로 캠퍼스가 떠들썩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비전에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곳저곳에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달간 이곳에서 아웃리치를 진행 중인 미국팀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땅 밟기와 예배, 거리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곳에서는 인사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볼에 키스하면서 인사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머리를 비스듬히 비벼가며 인사를 하거나 주먹을 서로 부딪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그러하듯 많이 지쳐 있고 위드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음을 봅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함께하는 현지 동역자들이 늘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 당뇨병과 특수 장애가 있는 이들이 주 안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보호해주시도록

터키

최권능 윤예지

은혜로 주신 사역에 기쁨이 넘치도록

- H 형제가 우울감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도록
- 제자 양육 세미나 후 새로운 영혼과의 양육에 귀한 열매들이 생기도록
- 가족 모두 영육이 강건하고 특히 윤예지 선교사의 위장, 대장에 건강함을 주시도록

터키

라함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 2차까지 백신 접종 후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외식을 하면 자주 장염에 걸려 며칠씩 고생을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터키

E 선교사

앞으로의 환경과 상황에 인도함이 있도록

- 많은 일들 가운데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 언어와 문화를 빠르게 잘 습득하도록
- 새로운 환경과 기후에 신체가 빨리 잘 적응하도록
-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도록

터키

브리스길라

이 땅에 추수의 열매가 잘 맺히고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도록
- L의 남편 Sk가 영접기도를 하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기를
- J의 구원과 믿음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 B의 닫힌 마음이 열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터키

배다윗
김화목

이 땅의 정치와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 문화센터의 정부 인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문화센터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주님 뜻 가운데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기존에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현지인들을 위해서
- 매일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인내와 사랑으로 현지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 한국에서 홀로 살고 계신 장모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내와 다시 K국으로 돌아와서 선교할 수 있도록
- 이 땅을 아내와 함께 다시 섬길 수 있도록

터키

복음
하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 새롭게 시작하는 기쁜소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도록
- 백신 프로젝트로 이란 민족에게도 아버지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시도록
- 새롭게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과 만남의 축복을 더해주시도록
-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터키

한솔로
레이아

파송을 위한 모든 준비와 출국 과정을 인도해주시도록

- 대면으로 모이고 있는 터키의 영어 예배 형제자매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 자녀를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그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시도록

레바논

전세계 · 문열림

은혜의 하우스와 개척 중인 사역들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는 지난 여름 고국 방문을 마치고 레바논으로 복귀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전, 단수, 가스 부족, 연료 부족,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와 D 가족이 은혜의 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D 가족은 바알벙에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 파송했지만 그곳은 강한 성향의 시아 지역이어서 거주부터 쉽지 않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는 타 종파 사람들이 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집값이 많이 올라 사역을 위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는데 집값은 오르고 집세를 달러로 받아서 서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달 넘게 집들을 알아보다가 저희가 고아원 사역할 때 만났던 직원 가족의 집을 빌렸고 그곳에서 어린이 공부방과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난민학교를 운영할 때 교사로 섬겼던 J 가정에서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모이기에 소수의 아이들이 참여하겠지만 그 아이들 가정에 복음을 전하길 기도합니다.

J 가정에 방문 중인 H의 어머니께 복음을 나눴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 시리아로 돌아가야 하는데 차편이 없어서 하루 더 머물던 상황에 이루어진 복음의 열매에 H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H의 주인집을 방문하여 간단한 구호품을 전달하며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이 가정은 드루즈 종파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었고 복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은혜의 하우스 근처에서 경비 일을 하며 양육을 받던 L 가정은 아이가 크게 소리치고 시끄럽다고 일하던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랍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지만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바빠서 제대로 못 섬겨서 아쉬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목사님 가정을 예비해주시길 기도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레바논의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학교 개학이 불투명했는데 다행히 개학하게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3인 첫째는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없기를, 둘째도 고등학교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바쁘고 연약함도 많아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섭섭하고 힘들어합니다. 가능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며 함께 지내는 동안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제목

- 영육 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 D 가족이 잘 훈련되어 귀한 사역자로 구비되고 가정교회를 세워가도록
- 레바논의 위기가 해결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 레바논 한인교회에 양적 질적 부흥이 있도록
- 자녀들의 건고한 믿음과 학업, 진로를 인도해주시도록

저희 가정의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랍어도 이제 조금씩 귀에 익어서 소통의 불편함이 가시길 시작했고, 난민 텐트에 방문하여 시리아 친구들과 교제하며 농담도 하며 지냅니다. 텐트에서 먹는 시리아 음식들이 입에 맞는 것을 느끼며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큰 변화와 놀라운 발전이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매일 아랍어수업을 진행하고 센터를 관리하며, 시간이 나는 대로 텐트촌을 방문하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현지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가 섬기고 있는 시리아 난민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푸드패키지를 나누는 사역을 중심으로 언어교육과 겨울철 난방유를 나누는 사역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날마다 치솟는 달러 환율,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난민을 섬기는 것에 대한 레바논 사람들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레바논 사람들도 함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베카 지역에 신임 선생님 가정을 보내주셨고, 기존의 센터 계약종료와 함께 새로운 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간 한국에 머물고 있던 다른 팀원들도 이제 모두 현장에 복귀하였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 레바논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행하심을 위해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 레바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 베카팀의 모든 유닛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고 새 학기를 맞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레바논

레반트
난민사역팀

경제 환경이 속히 회복되어 자국민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 급상승한 환율로 시리아와 이라크, 수단 난민과 팔레스타인 난민촌, 외국 인 근로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위해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높은 참여로 두려움에서 회복되도록
-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지 않도록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레바논

박경손
장에스더

주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도록

- 질병 중에 있는 믿음의 시리아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이 치유받도록
- 가정 방문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도록

레바논

이빛
이샘

이 땅의 난민들을 위한 사역에 지혜를 주시도록

- 레바논의 환율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이 회복되도록
- 교육센터 사역에 적합한 장소와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 선교사 부부의 팔과 어깨 근육통과 대면 수업을 하는 자녀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레바논

아쉬레
마리

부르심으로 떠나는 레바논 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도록

- 박수환 선교사의 손목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 파송과 출국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 레바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레바논

박새소망

이 땅에 평화와 회복이 속히 오도록

- 고통과 굶주림에 있는 난민들에게 복음과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 어린이 교육선교(New Hope School), 언어, 팀사역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과 평강으로 나아가도록
- 비자 발급을 위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복음을 위해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요르단

아굴라 · 브리스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평안하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아직도 죄성이 순간순간 살아 있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난민 후원이 줄어들면서 UN 산하 WFP가 난민들에게 매달 지원하던 소액의 지원금이 7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마저 9월부터는 여성 가장과 고아를 제외하고는 도시난민들의 지원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얻고 하루하루 먹고살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난민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이곳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얻을 수 없어 낙담이 큼니다. 요르단 정부는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취업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면 사실상 취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방문을 하며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난민의 삶이 길어지다 보니 소망도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이 더 커지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잃지 말 것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가난할 때 영원한 생명이시고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손 모읍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소개해드렸던 영어를 잘하는 첫 시리아 난민 M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반응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복음도 못 전했는데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정방문 전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가정방문이 위험한데 좀 더 나중에 할까?

언어공부에 더 집중할까? 센터 등록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등록 후에 할까?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M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추방의 위험도, 언어의 부족도, 바쁨도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희는 가정방문을 설 수가 없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해 두 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개월의 방문을 통해 드디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관심자 가정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캠프 지역에 사는 이 가족에게는 집도 위험하고 이웃도 여간 신경이 쓰입니다. 아이들이 세 명이나 되고 어려서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가정과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의 터치를 통해 부부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드디어 온라인 스쿨이 아닌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 반 기대 반 그렇게 학교에 간 첫날 아이들이 학교가 즐겁다는 말에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과 영적 멘토들을 만나고 배움의 즐거움도 알아가며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발견해 가도록 손 모아주십시오.

기도제목

- 관심자 가정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을 만나도록
- 한 팀이 된 모든 사역자와 동역자가 성령 충만하도록
- 자녀들의 학교생활이 늘 기쁘고 감사한 생활이 되도록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건강하고 담대해지는 가정 되도록

요르단에 돌아온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한 달간 아내 없이 셋째를 데리고 살아봤는데 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분주하게 시작했습니다. 요리도 못하는 제가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은 익숙할 만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식사 준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고 둘째도 한동대에 합격을 해서 내년엔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 부득이 셋째만 데리고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째의 대학 입학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셋째의 저녁을 차려주고 8시부터 집 주변을 산책하며 기도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무슬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더욱 생기고 더불어 살도 많이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현지인을 보면 마음속으로 중보하며 산책을 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가가 성경 구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사역이 열리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 고넬료나 루디아와 같이 복음을 듣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 2022년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 인간적인 계획으로 비자를 계획하지 않고 그분이 열어주시도록

요르단

이요한
안드보라

귀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중보자들이 생기도록

- 요한 선생님이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 드보라가 MA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 블루버드의 작은 음악회가 동네의 문화 행사로 이어지도록

요르단

여호수아
에스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는 요르단이 되도록

- 귀한 만남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도록
- 아랍어를 배움에 있어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도록

요르단

새노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음악 교육과 치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 요르단 친구 SH와 독일로 떠난 시리아 친구 H가 구원받도록
- 요르단에 남아 있는 시리아 친구들과의 교제가 깊어져 복음을 전하도록
- 새노래의 염증과 알러지가 깨끗이 치료되고 더욱 건강해지도록
-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요르단

신아벨
이셀라

언어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이 있도록
- 언어 사역에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 자녀의 환절기 감기 증상이 회복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요르단

서요셉
황로즈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도움의 손길이 닿아지도록
-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며 평안함을 누리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이집트

황디모데 · 송예나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살게 해주시도록

예멘에 있는 S 형제와 온라인으로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이 형제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치료를 위해 부부가 함께 카이로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당시 주일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집으로 가는 전철에서 형제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형제는 이미 주님을 믿고 있었고 아내는 무슬림이었습니다. 이후에 몇 번 더 교제를 했고 형제는 예멘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라마단 기간에 온라인으로 연락이 되어 교제 중 성경의 본문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형제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에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전도했던 세 명의 형제들과 지하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며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알고 참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북부 카이로 지역에 D 종족의 개척을 위해 교육센터를 만들어 어린이 및 여성 교육, 영어교육 등을 통해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 전도의 터전으로 삼으려 합니다. At 형제와 제가 지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해주십시오. At는 이번에 수단을 방문하여 D 종족에게 어떤 사역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단 내의 무슬림 종족들 가운데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려 하는 자매와 약혼을 한 뒤 수단을 방문하려 하는데, 이 과정이 모두 순조로이 이뤄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주십시오.

수단의 대사막선교단 사역소식을 전합니다. Y 목사와 세 명의 간사들이 수단의 영적 부흥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슬람 정권 아래에서 눌러 있던 수단 교회들을 다시금 새로운 상황에서 힘차게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명의 간사인 H와 A는 특별히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집트 양계장 건축을 시작합니다. 3년 전 한국에서 보나콤 사역을 개척하신 K 목사님께서 이집트에 오셔서 양계 비전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두란노 훈련생들과 이집트 교회 As 집사님이 함께 참석해서 비전을 배웠습니다. 이후 계속 이집트에 이 비전을 전수할 수 있는 양계장 및 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사역은 현지 교회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특히 무슬림에서 회심한 자들이 공동체로서 생업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갖고 시작됩니다. 이 양계장 건축이 한 달 이내로 잘 완성되고, 양계를 통해 계란 판매가 이뤄지는 장기적 계획이 잘 이뤄지도록,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을 품고 나아가도록 기도해주시요.

항상 동역자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제목

- S 형제를 통해 예멘 땅에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 AG 형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의 부름을 받아 헌신할 수 있도록
- L 자매의 가정에서 AN 간사를 사역자로 인정하고 평탄하게 허락해주시기를
- 자녀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삶을 살도록
- 재할 중이신 디모데의 아버지를 통해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도록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 모음 편지 최초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간증을 할까 합니다.

먼저는 저희 아들이 현지 대학의 의대를 마침내 졸업했습니다. 약 7년간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 매진한 결과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의대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들은 8월 말 즈음에 여권 갱신과 치아 치료와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고 쿠르디스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측에서 아내와 아들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기에 한국 비자가 없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때 한국으로 출국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얼마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S가 최근 들어 가슴 부위의 통증으로 심장 혈관을 검사했는데 4개의 심혈관이 막혔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S는 심혈관이 막혀 몸이 많이 부어 이 것이 빠져야 수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국하지 못한 아내와 아들은 늙은 호박 큰 것을 사서 몸에 좋은 것을 호박 안에 넣고 폭 삶아서 호박죽을 만들어주며 전심을 다해 S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술 날 아침 일찍 S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수술 환자들이 이미 다 왔으며 다른 날짜에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 종종 있지만, 심장 수술을 하는 날짜를 당일 날 바꿔버리는 일에 대해 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꼭 참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자신을 가르쳤던 의대 교수가 일하고 있는 개인 병원에 검사 날짜 예약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개인 병원에서 S의 심혈관 검사를 위해 그의 오른쪽 배를 통해 튜브를 꽂아 다시 한번 막힌 혈관들을 검사하였고, 아들이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심혈관들 중에 막힌 곳이 없고 다 뚫려 있다는 말과 함께 심장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입원실에 와 있던 친척들도 모두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S의 친척들도 예전에 저희를 통해 복음을 들었기에 예수님이 S를 고쳐주셨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근심과 염려로 어둠에 있었던 이들이 심혈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자 마치 빛 가운데로 나온 것처럼 모든 이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S 가정과 또 친인척들이 이번 일로 인해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한번 S의 심장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S의 심장이 튼튼해지도록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잘 자라 하나님의 군사로 일할 수 있도록 손 모아주세요.

처음에 한국 비자 문제로 인한 출국날짜 연기와 병원의 수술 당일 취소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치 앞도 잘 알지 못하기에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손해 보는 일들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이 모든 상황들을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번에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제목

- S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도록
- 선한목자 난민학교 부지 구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라크

한젠슨 · 한조니

난민학교를 위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도록

코로나19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주께로 모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해결의 아이디어들을 얻는 새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번 현지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이 성경학교와 아버지학교를 온누리교회 화평공동체와 함께 화상으로 시도하여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슬람 최대 명절로 긴 휴일에도 성경학교 물품이 딱 맞게 도착했고, 인터넷 문제가 있었지만 4~5주간 준비기간을 거친 모든 계획은 미리 맞춰놓은 것같이 잘 진행되어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God loves me’를 주제로 복음 팔찌·게임·사진 세 가지 스테이션을 통해 어린이 39명과 중·고생 보조 및 현지 교사, 교회 스태프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한 행복한 잔치였습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 고난과 시련이 많은 아버지들 30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와 더불어 자신들의 험한 삶을 아버지로서 서로 털어놓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되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결단하는 축복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난민학교 장학금 수여식’은 총 23명 중 성적상 6명, 출석상 4명이 뽑혀 상금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난민학교 대기 리스트의 학생들이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장소와 교육 인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현장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한 스태프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가을 학기에 대기 리스트의 학생들을 수용할 장소와 교육인력을 공급해주시도록
- 쿠르드인 교육 스태프 선생님들과 아랍어 보조교사, 교회 스태프분들에게 효과적인 난민학교 학생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제작에 지혜 주시도록

이라크

반석
하나

현지 교인들을 치유하시며 보호하시도록

- 반석 선교사가 코로나19로부터 빠른 회복과 충전이 있도록
- 교회 건축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속히 이뤄지도록
- 복음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잘못된 뿌리들이 기경되도록
- 세 자녀의 신학기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건전한 친구들과 연결되며 바른 의식들이 세워지도록

사우디아라비아

바나바
송사라

국가의 꾸준한 문호 개방에 따른 종교적 완화 정책이 이뤄지도록

- 교인 중에 세 명이 코로나19 감염 상태인데 속히 회복되도록
- 온라인 예배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 한국에서 휴가 중인데 의미 있는 참 쉼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도록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레이스

이 땅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덮여지도록

- 현지 유대인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무료급식과 돌봄 사역을 끝까지 이루 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의 힘을 주시도록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이스라엘

오갈렙
김웨리

항상 주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 가르쳤던 아이들이 건강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 온 가족이 강건할 수 있도록

아프가니
스탄

이다윗 · 정빛

주님의 강한 팔과 크신 손으로 이 땅을 붙들어주시도록

“꽁! 꽁! 꽁꽁!” 대문이 부서져라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 대문인 줄 알았습니다. 캄캄한 시간인데 현지 청년들이 급하게 우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빨리 피해야 합니다! 탈레반이 B시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외국인은 선생님 가정밖에 없어요. 금방 잡으러 올 거예요!”

지난 급박했던 상황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철수하기 7주 전에 B시에서 임시로 한국어학당을 오픈했습니다. B시 내 한 대학교와 또 다른 사립고등학교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미주에서 세 분의 SVM(Senior Volunteer Missionary, 시니어로서 삶을 통해 갖추어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선교사 마인드로 열방에서 교회 개척을 담당하는 사역자)이 도착했습니다.

B시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일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250여 명의 학생들이 새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7개의 클래스를 열고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3주간은 한국어학당 셋업과 학생들의 한국어 기초 교육을 가르치는데, 엄청나게 힘든 일정을 세 분 선생님들이 잘 감당해주셨습니다.

4주차 때에 현지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 휴교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페르시아 비전센터로 몰려왔습니다. 한국어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현지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1단계로는 대상 영혼에게 SVM 선생님들이 영어나 간단한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2단계는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성경공부를 저희들과 함께 배웁니다. 3단계는 회개와 성령 인카운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민족 특성상, 한 명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영접하는 이들과 성령을 받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F 형제는 함께 회개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고백하기를 “나는 여기 있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거기서 하얀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빛나고 눈이 부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해주셨다고 하셨어요. 계속 말씀해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감사기도를 드릴 때 이 형제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울고 또 울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내가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몸이 너무 떨리는데 제 몸이 이상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확실히 만났고 믿어집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와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주셨습니다.

B시를 떠나기 바로 2주 전, 훈련이 끝난 두 명의 현지 청년을 FM(Final Military, 페르시아 창에서 2030년까지 현지의 믿는 자들과 현지 교회를 배가하고, 그중 1%를 청년선교사로 보내려는 “FM1% 비전”으로 파송하는 현지인 사역자)으로 중앙아시아로 파송했습니다.

두 명의 청년, 페트루쓰와 폴루쓰를 파송할 때까지만 해도 1주 후에는 두 나라 간의 국경이 닫히고, 2주 후에는 이웃나라로 임시철수 권고를 받게 될지 몰랐습니다. 페트루쓰와 폴루쓰는 서아시아 A와 서아시아 B에서 파송된 청년들과 함께 중앙아시아에서 연합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매일 복음을 전하며 교회 개척과 중앙아시아 청년 부흥을 간구하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 모국의 전쟁, 함락의 소식과 가족의 위험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두 FM 청년은 다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트루쓰 형제는 “제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가족과 같이 있어주는 것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서아시아 A 파송형제들과 중앙아시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폴루쓰 형제는 “저는 모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FM 사역을 조기 종료하고 전쟁 중인 모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탈레반에 의해 점령된 고국, 고향 땅에 돌아온 폴루쓰 형제는 지난 한 달 사이에 대가족인 자신의 가족들 모두에게 복음을 나눴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가족들은 확신에 찬 그로부터 성경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짧게 전해왔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가족들을 성경말씀과 믿음으로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신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수백 년간 그

들이 믿어왔던 신은 그들을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B 지방에 급작스러운 육로 차단과 탈레반의 근접으로 이웃나라로 임시철수를 하면서, B시로 들어오기로 했던 MIT팀을 이웃나라 난민사역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웃나라는 유럽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머물거나 정착을 합니다.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연기해두고, 난민들에게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모임 중인데 눈물은 흐르고 머리는 텅 빈 듯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아노미 상태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상황은 정리되어 가면서도 마음은 냉담했습니다. 모임 마지막 즈음에 아프간 FM 청년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A국 첫 번째 FM인 쿠로쉬 형제와 얼마 전 중앙아시아에 파송된 페트루쓰 형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 쿠로쉬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평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는지 잘 몰랐지만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 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던 바로 그 말씀을 다시 제 안에 또렷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60:21-22

기도제목

- 이 땅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 이 시기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이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보호해주시도록
 - 세계 모든 교회가 회개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기도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

아랍에미리트

한길
임사랑

하반기에 시작하는 '예수 동행 세미나' 프로그램에 은혜 내려주시도록

-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교회와 공동체를 더 사랑하도록
- 더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 비전교회를 찾음으로 크게 부흥하여 비전교회에 맡겨진 중동 선교의 비전을 속히 성취할 수 있도록
- 선교사 부부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좋은 본이 되도록

아랍에미리트

에스라
에젤

가정이 믿음 안에 더욱 굳건히 서도록

- 부부가 주님과 늘 동행케 하시고 맡겨진 성도들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섬기도록
- 화수 골방 기도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중보자로 서게 하시고 함께 하는 중동의 선교사님들과 기도로 연합하고 동역하도록
- 바라카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가 풍성해지고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 새로워지도록
- 루와이스 온누리교회가 선교적 교회 & 다민족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S · O 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다시 한번 마음이 회복되도록

-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중증이나 사망하지 않도록
- 미국의 '9 Marks Ministry'의 방문으로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 기회에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S · J 선교사

예비해주신 새로운 사역지에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 프랑스 도착 후 비자업무 등 모든 준비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 아프리카 유니온 교회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전이 잘 공유되도록
- 예비하신 사무실과 거주지를 순조롭게 구할 수 있도록



온누리에서 ON편지

아프리카

감비아

보아스 · 나오미

대통령 선거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정세가 안정되도록

사랑하는 동역자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두 달간 한국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감비아에 돌아오자 J 센터의 교회 식구들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 환호와 박수로 나오미 선교사에게 안기며 저희 부부를 반겨주었습니다.

전에 기도 요청을 드렸던 이곳 커뮤니티의 네 살짜리 꼬마 P의 발가락 재건수술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의료팀에서 수술해줄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주시고 동역하는 여러 선교기관 및 공동체가 연합하여 아이와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수술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P의 재건 수술이 잘되어 두 발로 친구들과 신나게 걷고 뛰어놀 수 있는 기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비아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재임을 원하는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지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 충돌이 예상되며 모든 선교사들이 세네갈로 피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 큰 소동 없이 결과에 승복하여 감비아의 정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 큰 소동 없이 정세가 안정되도록
- 꼬마친구 P의 발가락 재건수술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고 모든 재정이 채워지도록
- 쏠라 라이트가 필요한 가정에 설치되며 영육 간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로코

김갈렘 · 차한나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모든 동역자분들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B 종족을 위한 사역을 지원할 센터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여름에는 국내단체의 사단법인 등록과정이 진행되었고 현장에서 전도에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 수학 교육 세미나가 있어 참석했습니다. 센터가 잘 설립되고 잘 운영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칼뱅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문답식으로 작성된 신앙고백)을 모로코의 생활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현재는 현지 교회 내의 차세대 리더를 선발하여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팬데믹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김갈렘 선교사는 선교학 과정(M.A.)에 편입학하여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며 셋째 아이는 명지대 아랍지역학과에 합격해서 내년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세 자녀 모두 저희와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위치에 잘 있으면서 잘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B 종족 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 차세대 리더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 부모와의 분리를 준비하는 세 자녀가 각자의 위치에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남수단

정피터 · 손사라

난민들이 자립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면적인 이동 통제와 학교 휴교 조치가 취해져 이 기간의 대부분을 난민촌 양계장에서 보냈습니다. 4월에 들어온 병아리 550마리는 큰 탈 없이 잘 자랐는데 6월에 전염병이 돌면서 100마리가 폐사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운 병아리들이 매일 10여 마리씩 죽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웠고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를 통해 난민들을 훈련시키시고 아프리카의 양계 환경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을 주셔서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백신을 맞히고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현재까지 살아남은 424마리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8월 말에는 4마리의 암탉이 알을 낳더니 10월에는 모든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하여 매일 200개 정도의 달걀을 기대합니다. 달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의 영양 강화와 난민들의 자립을 위한 종자돈 마련에 사용될 것입니다. 병아리를 잃은 뼈아픈 경험을 겪고 난 후 닭의 질병에 대해 훈련생들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아프리카 닭들에게 발생하는 질병들의 특성을 알아두는 것이 현지인들의 양계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명의 양계장 훈련생들을 통해 이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자립에 대한 희망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양계장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가 내릴 때 배수가 잘 되도록 화단 테두리에 벽돌을 쌓고 물길을 정비했습니다. 양계장 주변에 망고, 바나나, 아보카도, 잭프루트 등의 여러 과일나무 묘목도 심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양계장은 현지인들을 위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생들과 주방조리사에게 과일 나무 묘목을 나누어주며 집 주변에 심게 했습니다. 바나나 외에는 5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후원한 우물이 P 지역의 난민촌에 완공되었습니다. 우물 보호벽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구해와서 쌓았습니다. 물 공급이 잘되지 않아 식수 제공이 어려웠는데 우물 덕분에 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협의하여 학교 휴교 조치로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어린이들 2500여 명에게 옥수수가루 25kg를 배분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P 난민촌 운영팀에는 비누 400박스, 20리터짜리 손소독제 30통, 20리터짜리 물비누 50통, 마스크 9000장 등의 예방 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긴 막대비누 400박스는 P 난민촌의 1만 가구에 배분되어 각 가정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씻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속히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호와 살롬!

기도제목

- 달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양계장 운영의 종착점이 마련되도록
- 현지의 난민 훈련생들이 양계장 운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 학교와 난민촌이 잘 운영되고 팬데믹이 끝나 교육과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모리타니

피터 · 조안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섬길 수 있도록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다니노라면 시원한 계절이 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흘린 땀만큼이나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기에 주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이 영양사역은 센터를 방문했던 아기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뻘뻘 앙상한 아기들을 보며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정해진 절차를 차분히 따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여유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모리타니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이 영양사역이 시작된 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빈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긴급구호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국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단백 영양 가루를 제작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었지만 감사하게도 영양실조 아동 가정들과 장애인, 노인, 미망인 가정 총 500가정에 쌀, 식용유, 고단백 영양 가루,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는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다시 한 번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피터 선교사의 기침이 거의 멈췄습니다. 그동안 함께 걱정과 사랑의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쁜 사역으로 인해 몸이 고단한 것도 잊은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말씀묵상과 가족예배, 운동과 건강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건강하게 보낸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바쁜 학업 중에 축구부 활동도 참여하며 열심히 고교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딤후 6:8) 빈민촌 사역을 하면서 하루하루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이들을 만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린 엄마,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대신해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노인, 모녀 3명이 맹인인 가족, 건강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온 근육이 뒤틀리는 병을 앓게 된 가족 등 수많은 사연을 가진 이들을 만나며 저희가 누리는 은혜에 몸 둘 바를 모르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모리타니에 살면서 가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농장이 몇 개 생기면서 두부도 사먹을 수 있고 배추도 가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과 다른 환경에 살다보니 가끔씩은 먹는 것으로 풀 수 있는 정서의 갈급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민촌 사역을 하면서 ‘배부른 갈급함’에 대해 많이 민망해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묵상하며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
- 기도제목
-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이 건강해져 모리타니의 희망이 되도록
 - 빈민 사역과 내년도 사업의 방향성이 잘 정해지도록
 - 가족 모두 건강하게 더욱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

세네갈

이에녹 · Aysata Lee

어두운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시지요?

제가 머무는 이곳은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 여러 사역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은 P 종족 크리스천들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 중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는 성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예배와 양육 그리고 복음 전도사역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 주일 사무엘상 강해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의 군대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다윗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적의 거대한 위협에 침묵으로 반응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 종족. 이 땅을 위해 누가 다윗이 되어야 하는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수많은 다윗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 싸우는 목동 다윗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R 교회의 성경학교는 지난 4개월의 첫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방학 중입니다. 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 과정은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 P 종족을 위한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곱지 않은 시선의 주변 상황 등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M 지역에서는 짧은 방학을 마치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학생들 모두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태, 정전, 우기 때 함석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로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말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매우 뜨겁습니다. 2년 과정의 성경학교를 통해 흠어진 종족 마을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함께 사역하는 S 형제 가족은 지난 몇 달간 많은 영적 공격으로 인해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자신들을 무너트리기 위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시기를 견뎌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역자로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이 S 형제를 조금씩 지배했습니다. 무슬림 친척 집에서 자란 큰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무슬림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일로 인해 가족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오토바이 사고로 앞니가 8개 빠지고 후유증이 있었으며 코로나19 감염, 유행성 눈병 등 무척 힘든 날들이 연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지지 않고 지난 주일에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직 어린 자녀들이 무슬림 친척들 손에 자라게 될 테니 아이들이 무슬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울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 땅에 심어지는 복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형제는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무슬림 친척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맡기지 말고 저희에게 양육과 진로를 책임지는 권한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음이 닫힌 이곳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 전도를 위해 그를 통해 심으신 희망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동역자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제목

- 교회에서 양육되는 학생들이 잘 성장해 P 종족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 S 형제 가정에 평안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 더 많은 마을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버려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에티오피아

노아 · 세아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인사드립니다.

북부 전선 진영과 정부군 사이의 전투가 내전의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은 발급 업무 중단 1주일 남짓 전 잠시 발급 업무가 재개된 시기에 신청하여 3개월 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는 인생의 복을 저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입국 후 하나님의 은혜로 세아 선교사가 근무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의 교사 관사에 입주했습니다. 노아 선교사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에 있고 세아 선교사는 코로나19 판정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세 자녀는 2년 만에 영국 학제의 학교에 복귀하여 적응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나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고후 3:18) 이 말씀은 이 땅에 와서 처음 주신 말씀으로,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일어나며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해주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희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주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세아 선교사가 회복되며 교사로서 잘 쓰임받도록
- 노아 선교사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 세 자녀가 학업을 잘 따라가며 각자의 인생을 위한 부르심을 알고 따라가도록

코트디
부아르

트레조 김

기도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안녕하세요?

이곳에서의 생활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게 잘 지내려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배웁니다. 어학원 학비를 채워주신 하나님과 물질로 후원해주신 중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초기 정착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다보니 어학원을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로 학원 수강료와 교통비를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에 선임 선교사를 따라 교회 인근 지역과 대학교 전도에 참여했는데 선임 선교사는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셔서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가르치던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도에서 만난 한 여인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는 봤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주일 예배는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시작과 마지막은 기도에 전력을 다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2명의 자매가 비명을 지르다가 쓰러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린 영혼들이 많음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과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건강관리를 잘하고 프랑스어 학습에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도록
- 어린이 큐티방과 영어수업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수업에 필요한 교구들을 허락해주시도록

가나

김루이스
강한나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 BEE 사역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 BEE에 등록한 학생들이 건강하고 이들이 속한 교회가 부흥하도록
- 10월에 재개된 L 그룹의 전도론 세미나에 은혜를 주시도록
- 가나의 주요 도시들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BEE 사역이 시작되도록
- F국에서의 BEE 사역이 훈련받은 1, 2, 3세대에 의해 신실하게 진행되도록
- 두 자녀의 키와 믿음이 성장하고 재개된 등교 수업이 안전히 이루어지도록
- 온 가족이 힘든 여건 중에도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말라위

박일구
신인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 말라위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 말라위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 토요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함이 생기도록
- 가족 모두가 일상에서 감사가 떠오르는 삶이 되도록

모로코

이보라

여성 센터가 활성화되어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 거주증을 순적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센터가 활성화되어 여성 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살려갈 수 있도록
- 덮인 어둠이 파쇄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예비 된 영혼들을 만나는 길이 순적하게 열리도록

세네갈

가브리엘
소피아

의료사역 가운데 복음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도록

- 프로젝트의 파트너인 많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나누도록
- 힘든 초기 정착기를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잘 지켜나가도록
- 일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진행 중인데 그곳으로 가는 문이 열리도록

세네갈

아이작
사만다

교회 개척이 잘 이루어지도록

- 홀로 계신 어머니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 가족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세워가도록
- 다시 시작한 A 마을의 사역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되도록
- 사역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신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세네갈

정직한
정결한

언어실력이 발전하고 농업개발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 어린이 사역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 정결한 선교사 둘째 언니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가려움증이 사라지도록
-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에티오피아

윤브루하누
이블렌

내전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도록

- 내전, 물가상승,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의 문제가 안정되도록
- 현지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코로나19 감염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가 더욱 부흥되도록
- 윤브루하누 선교사가 백내장 수술을 집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주시고 현지 의료진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 새 학년이 시작된 자녀들과 가족 모두 건강하도록

케냐

갈렘 신
조슈아 홍

사역을 위한 차량이 공급되도록

- 케냐 사역을 돌볼 수 있는 차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 현지화를 위한 리더십과 관리 시스템이 잘 마련되도록
- 탄자니아 사역이 안정화되어 새로운 개척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가 학업과 진로 준비를 잘하도록
- 바쁜 가운데에도 예배를 잃지 않고 예배자로 사는 가정이 되도록

케냐

김현우
우주희

차세대 사역이 부흥하고 영적 민감함을 주시도록

- 선교사 부부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비전을 품고 건강한 사역을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지혜, 건강, 담대한 믿음, 영적 민감함을 주시도록
- 그룹홈, 유치원, 차세대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어린이 사역에 달란트가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 기숙학교에 있는 세 자녀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진로를 인도해주시도록
- 우주희 선교사 어머니가 건강하고 가족이 구원받도록

코트디부아르

김빌립
임보희

예배 공간이 구해지도록

- 대학교에서 가깝고 교통과 안전이 좋은 곳에 예배 공간이 구해질 수 있도록
- 10여 명의 대학생들의 양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 어린이 큐티 사역을 준비하는 4명의 학생들이 사명감을 갖게 되도록

콩고

김사무엘
에스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있도록

- 지역 건설을 위한 기술 협상과 계약, 투입 인원 관련 조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 훈련받은 전도폭발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 두 자녀에게 삶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탄자니아

그레이스 조

사도행전적 교회로 서가도록

- 교회에 예비하신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제자 양육이 잘 진행되도록
- 복음을 힘 있게 전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 교회 건축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탄자니아

이영재
최영미

교회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 교회 지붕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 성도들이 많아지고 예배가 부흥되도록
-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시도록
-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튀니지

박사라

제자화가 잘 되도록

- 성경을 읽고 있는 S와 J 안에 말씀이 뿌리내려 믿음이 자라도록
- S와 J가 교육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례를 잘 받도록
-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가 빠른 대처를 하도록

튀니지

이성령
김단비

필요한 물품이 잘 운반되도록

- 동역하는 박사라 선교사가 안전하게 지켜지며 영혼들과의 만남 속에서 좋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도록
- 필요한 물품이 한국에서 잘 구매되고 튀니지까지 잘 운반되도록
- 자녀 개명과 서류작업이 잘 완료되도록



온누리에서 ON편지

**유라시아
미주
오세아니아**

러시아 문경배·이명선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지난번 편지에서 부탁드린 기도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이르쿠츠크로 이사하는 모든 과정과 서류 등록의 진행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파트를 구하고 거주지 등록을 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 를 거절하거나 임대는 하더라도 거주지 등록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여 참으로 막막했습니 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지인을 통하여 아파트를 구하고 거주지 등록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 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집주인과 거주지 등록을 하러 이민국에 간 첫날에는 두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이틀 후에야 겨우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지만 이것은 고난 이 아니라 단지 불편함일 뿐이며 선교지에서 마땅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 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당황스럽고 적응이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우 여곡절 끝에 거주지 등록을 마치고 나니 마침내 이르쿠츠크로 이사를 온 것과 이곳이 우리 가 살아가며 사역할 도시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3일 동안 도시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돌며 기도한 것입니다. 맑게 웃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대학생들은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한편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학생들과의 만남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이곳에서 적응하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집안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위 한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종독인지 밭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기도 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힘을 다해 후원해주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

런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법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명선 선교사는 감사하게도 이르쿠츠크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개교한 지 100년이 넘는 동시베리아 교육의 중심인 대학교입니다. 2~4학년 학부 수업과 야간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업도 많고 만나는 학생들도 다양하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일하는 교수님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특히 수업 시간이 늘어나서 체력적인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운동도 하며 주님이 주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르쿠츠크로 사역지를 옮긴 이후 이곳 목회자들과 만나 청년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곳 교회들은 지난 12년 동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교회였는데 교인들 스스로 예배당을 짓고 많은 분들이 출석하며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이 기쁘긴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젊은 부부)에 대해 걱정과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청년·대학생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신앙 훈련을 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청년들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연합된 영적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기도제목

- 새로운 사역지에 잘 적응하고 영육 간에 건강하기를
- 이르쿠츠크 현지 목회자들과 잘 협력하여 젊은 세대를 위한 사역을 잘 세워가기를
- 이명선 선교사가 대학교 강의를 통해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 블라디보스토크 후임 사역자의 비자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고 사역 공유와 인계가 잘 이루어지며 그곳에 더욱 의미 있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기를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병원 외과 개설과 교육센터 건립에 관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외과 허가는 7월에 잘 받았고, 교육센터도 건축에 필요한 부지와 재정이 은혜로 채워져 현재 한창 건축 중입니다. 곧 완공하여 12월 중에 허가(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컴퓨터 교육 등)를 받아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병원 직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최근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속마음을 나누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인 R(남, 48세)은 하나뿐인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H(여, 50세)는 손자가 뇌수종을 앓고 있고요. 간호사인 G(여, 58세)도 하나뿐인 아들이 간질을 앓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치유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구하면 고쳐주고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이들 안에 싹트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특히 임상병리사인 N(여, 29세)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자 했으나 가족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포기하고 크리스천인 것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녀의 어머니가 이 나라에서는 하기 어려운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N의 믿음이 회복되고 충만해져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매일 아침 드려지는 직원 예배를 통해 믿지 않는 직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 교육센터 건축과 허가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 H 병원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 N이 믿음을 회복하고 R, H, G네 가정에 육적 치유와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 저희 부부가 영육 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 연로하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온누리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긴 싸움의 여정에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그 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땅의 영혼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정신 차리라고 사건들이 생겨줘서 긴장을 놓지 않게 하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입국 금지국 중에 대한민국도 포함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아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교회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만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R, N, V 같은 믿는 청년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지금이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남은 이들을 통해 주께서 오실 마지막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전력 질주를 위해 잠시 쉬어가려 합니다. 상황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재충전을 하고 동역자님들과 함께 허리띠를 동여매기 위해 입국합니다. 주께서 아제르바이잔 E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셔서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도록 기도해주시옵시오. 그리고 제가 안식년을 보내며 새롭게 충전되어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결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E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로 서도록
- R, N, V가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떨치고 일어나도록
- 안식년 기간에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고 사역을 감당할 새 힘을 얻도록

카자흐
스탄

설영·설민

선교지로 나가는 첫걸음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에 선교지로 나갈 설영, 설민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각각 10대와 20대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온누리교회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온누리 선교본부 사역, 미국에서의 신학 공부와 선교센터 사역 등을 통해 성장하였습니다. 사역하고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딸 셋과 아들 하나, 네 자녀를 보내 주셔서 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년 1월에 출국하여 중앙아시아 투르크 무슬림들을 섬기게 됩니다. 출국을 앞두고 현지 거주를 위한 비자 및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인데, 입국 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 5개월 안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정된 사역을 위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를 놓고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국제학교가 적응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현지 학교에 보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응, 안전, 선교사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10년, 20년 후의 아이들 인생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심으신 투르크 무슬림들을 향해 발걸음을 떼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변 분들에게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재정과 기도 후원으로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르크 무슬림들을 위해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요.

기도제목

- 입국 비자 및 영주권 서류의 준비 작업과 입국 후 영주권 발급이 순적하도록
- 자녀들 학교 결정에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 더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무슬림 가운데 루디아와 같은 평화의 사람을 만나도록

동역자분들 어떻게 지내는지요? 타지키스탄에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와 퍼져가는 중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S 자매와는 매주 만나며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조혼(早婚) 풍습이 있는 나라에 살기에 S 자매는 앞날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S 자매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녀가 빛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H네 가정을 쿠르본 명절(라마단 후 40일 지난 날)에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제물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양을 대신 준비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고 가난한 이들에게도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죄를 가볍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구원 얻기를 소망합니다. M 교회에서 저희가 청년들을 돌보게 되면서 사역이 좀 더 늘었습니다. 바쁜 중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3주 전에 새로운 가정집이 모임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G 자매가 데려온 친구 M 자매도 모임에 잘 나오고 있어서 저희 집으로 초대하여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이 청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여 리더로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6개월이 지나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순적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는 이곳에 있는 동안 열심히 영혼들을 섬기고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제목

- 맡겨주신 M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 비자 발급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 두 자녀가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바뀐 언어(영어)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도록
- S 자매와 만나 복음을 나눌 때 그녀가 마음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 1년간 학생 선교사로 나가는 G 자매의 재정이 채워지고 그녀가 잘 훈련되도록

타지키 스탄

차요셉·방라헬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동역자분들도 그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반년이 넘게 소식을 전하지 못했네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난민이 타지키스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NGO (비정부 기구)를 통해 아프간 난민 몇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월 방문하여 생필품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작은 몸부림이지만 이곳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이 살아갈 희망을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난민 섬김 사역을 할 예정인데 함께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실 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타지키스탄 국립대학 내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봉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여성 전통복인 ‘쿠르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데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기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학생들

이 수업을 통해 비전을 갖게 되고 개인 만남을 통해 복음과의 접촉점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에 한국어 코스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캠퍼스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역을 통해 이 땅의 청년들이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돕는 소망 재봉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도 이 땅의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도합니다. 매 코스가 진행될 때마다 한부모가정의 여성들을 만납니다. 버림받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들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길 바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타지키스탄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등 계속 발전하고는 있지만, 이 나라가 중앙아시아 최대 빈국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관공서에서 일 처리 하나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밥값이라도 챙겨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NGO를 통해 사역하다 보니 관공서와 부딪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최근에 들은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첫째 아이는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여름에는 1년 8개월 만에 옆 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뚫고 부모를 찾아온 둘째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둘째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아플 때 하늘길이 막혀 가보지도 못하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 주변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동역자님의 섬김으로 둘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내년에 대입을 치러야 합니다. 한 나라에서 정규과정의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못한 탓에 특례입학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아프간 난민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 후원이 계속되기를
- 국립대에 한국어 코스가 개설되어 캠퍼스 사역이 시작될 수 있기를
- 소망 재봉교실 사역을 통해 여성들의 자립 발판이 마련되기를
- 첫째의 입대와 둘째의 입시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키르기스
스탄

D·I 선교사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나누며 늘 감사하도록

그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키르기스스탄에는 10월에 첫눈이 왔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 30도에 이르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었지요. 아직 자라고 있던 토마토와 고추, 피망이 다 시들어 버리기 하루 전에 R네 가족을 불러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거두어 가게 한 것이 다행입니다. 유난히 가뭄이 심해 전력난까지 겪은 올해 그만큼의 수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예년보다 늦게까지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고아원 아이들이 겨울내 먹을 토마토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만들듯이 여기서는 토마토로 여러 가지 병조림을 만들어 겨울내 먹거든요. 특히 원장님의 특별한 결정으로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 하우스에서 채소를 직접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식사도 하고 놀이도 하면서 저희 아이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R의 아내 E가 지난 8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호숫가에서 회사 식구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E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들은 가까운 친구들이 인근의 조그만 공터에서 모닥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E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며 함께 이 좁은 길을 가기 바라는 소망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U 형제가 돌아가신 지 40일째 되는 날이 8월 말에 있었습니다. 장례 후 40일이 되는 날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고인을 기억하는 관습이 있어서, R과 K, J, UI 등 친구들이 모여 소 한 마리를 잡아 식사 준비를 하고 친지들과 함께 고인을 기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생 A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U의 아내와 아이들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가정의 빈자리를 느끼며 힘겨워할 텐데 아버지의 위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부터 안경사역도 재개되었습니다. 9월 초 세 분이 남쪽 국경지역 K 마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약속하고 미뤄둔 분들을 만나 시력검사를 했고, 지난겨울에 방문한 N 지역에도 다시 방문하여 설길 수 있었습니다. 시력이 너무 낮은 아이에게 꼭 맞는 안경이 마침 있어서 놀라고 감사했으며, 시력검사를 통해 알게 된 질병을 치료하면서 시력도 덩달아

회복되는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S 선생님과 함께 계속 가지 못하던 St 마을에도 가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곳곳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 교제하고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영상으로 하는 안경사역 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시력검사와 처방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을 위해 UI도 교육을 받고 있고, I 선교사가 교육받은 미디어 사역 내용에 대해서도 R과 나눌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UI네 가정이 그동안 살던 처가에서 떠나 이사를 했습니다. 처남이 장모님과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해서 부득이 B 도시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섬기던 회사에 일단 머물고 있는데 태어난 지 두 달 지난 아이를 품에 안고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저희 가정도 상황이 비슷했는데 해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처럼 하여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세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지만 일단 저희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10월에 4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한 달이나 떠나 있는 것이 처음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시겠지요?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도제목

- 새로 이사하여 정착하는 UI네 가정이 잘 안정되기를
- 매주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안경사역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 안경사역팀 구성원들이 연합하고 사역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세워가도록
- 함께 농사일을 해나갈 사람들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주께서 인도해주시기를
- 첫째가 고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진로를 찾으며 가족 모두 건강을 잘 지키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의 기도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동역자님의 삶 가운데 어둠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9월에는 옥스퍼드를 방문하여 거리 설교와 전도를 하였습니다. 오가는 길이 조금 힘들었으나 일단 옥스퍼드에 도착해서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00여 명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지를 나눠드렸고 개인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케이티라는 할머니는 전문의인데 제가 선포하는 내용에 100% 동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였는데 케이티는 많이 고취되어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만다라는 40대 여성도 만났습니다. 교회는 안 가고 있지만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 전하자 그녀는 정말 그렇다고 인식하게 되어 고맙다며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선포에 대해 많이 귀 기울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케임브리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얼마 전에 첫째가 체육시간에 넘어져 발목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 매우 확신이 있는 때라 시기를 미룰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함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도심까지 차가 운행되지 않아 근처에서 전포 지점까지 딸이 비 오는 거리를 목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트리니티 교회 앞에서 찬송과 함께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큰딸은 앉아서 사진을 찍고 둘째는 열심히 전도했으며 셋째는 노숙자 아저씨들과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받으며 선포에 반응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는 젊은이들도 전도지를 많이 받았는데, 케임브리지에서는 젊은이들이 잘 받지 않고 어른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과 중심인 케임브리지 학생들이 복음에서 더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였고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사람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안 듣는 척하면서 귀 기울이며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역자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지난 17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반응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이고 복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느낍니다. C 도시에서 설교할 때 R을 만났는데 그는 첫날부터 복음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준비된 영혼으로 보입니다. 원래 영국인들은 보수적이고 서두르지 않기에 복음을 전하면 생각해보겠다며 가는 경우가 많은데 R은 달랐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저희 교회로 초대했는데 주일에 정말로 왔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정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반려견이 아파 그가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에는 순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R이 믿음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는 심리학 전공생으로 학부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석사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진리 안에 견고히 서고 친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신실함을 원하는 크리스천들이 기존 교회에서 의미나 안식을 찾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더 강해 보이는 이단이나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마른 젊은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시기를,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주십시오.

영혼이 살아나는 데는 항상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물질 압박, 몸에 대한 공격, 가족이나 인간관계를 통한 공격 등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옵니다. 동역자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으로 이런 것들이 줄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도시 사역 때 복음 선포 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나 큰아이가 발목을 다쳐 응급실로 가야 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 노방 전도와 복음 선포를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도록
- R이 계속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도록
- 둘째가 다니는 기독교 학교에 첫째도 원서를 넣었는데 두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고 통학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영국

김은하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치료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이라고 느낀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 겨울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 편지 이후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기에 무엇부터 나누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끊임 없는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9월 9일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전혀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었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 담담히 수술에 임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고통을 이겨낼 힘과 강건함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비록 죽음의 문턱을 지나오지는 않았지만, 제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다는 것과 제가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다른 장기의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의 전이가 없어 난소암 1기 말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6차까지 해야 한다고 하여 9월 27일 1차를 시작으로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 매 순간 크고 작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며(4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9~11절)” 하는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질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종양이 컸는데도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것을 보고 제 주치의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수술 과정 중에 아주 초기의 암이 다른 부위에서

발견되어 그것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매 순간 제게 주신 은혜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제 몸의 질병을 드러내시고 깨끗이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분간 계속되는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처럼 쉬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깐 쉬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쉬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사역이 아닌 주님과 친밀한 시간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중심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결코 쉴 수 없기에 때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지금 현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시편 37:1~7a)

기도제목

- 매 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항암 치료를 큰 부작용 없이 잘 마치고, 치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 이란어와 아랍어권 사역을 이끌어가는 필립 목사님을 비롯한 영국의 팀원들이 하나 되고 계속 복음이 확장되도록
 - 새롭게 호프하우스 관리자로 온 피트와 베스가 호프하우스 사역을 잘 이해하고 무슬림 여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 남동생이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마음 문을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직장 동료 중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도록
-

샬롬~! 불가리아예요. 얼마 전 에녹 선교사와 아이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짧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기도 부락을 드렸던 노방 전도 집회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시(市)의 허락하에 준비를 진행해왔는데 예정일을 두 주 남 겨놓고 불가리아 중앙정부 측의 집회 금지 공문이 내려왔나 봅니다. 이 소식에 실망한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고 내년 봄에 다시 시도해보자고 결의했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저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 이전과 관련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수로 구성된 건물주들이 매매 결의와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 제안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순전히 진행되고 그분의 인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 리더들과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예비를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지난번 편지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은 독감 수준입니다. 백신 접종률도 유럽에서 가장 낮습니다. 작년 한때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도(유럽 내 감염률과 사망률 1위) 지금은 긴장을 풀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째를 독일의 선교사 자녀 학교 기숙사로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생활과 학업에 잘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주의 보호 아래 건강하도록 기도해주시요.

기도제목

- 교회 이전 문제가 순전히 진행되고, 현지 리더들과 한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둔감한 이곳에 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기를
- 첫째가 주님의 보호와 만남의 축복 아래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도록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문안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신지요? 장기화되는 팬데믹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함없는 기쁨과 소망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몇 달 전 이 지역의 복잡한 정치적 종교적 상황 가운데, 결국 민간인 지역에도 로켓이 날아오는 공습이 열흘 정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어딜 가든 대피장소를 살피고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습에 대비해 일상을 조정하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을 기다림에 대해 참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참된 살롬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허락된 얼마의 시간을 하늘의 특별한 선물로 여기며, 주의 귀하신 뜻을 이뤄드리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팬데믹 봉쇄 중이라 여행과 집회가 제한되어 가까운 교회의 작은 열방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인 목회자께서 국제 학생들을 섬기시는데 여기서 함께 교제하고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기독교 학생들을 만나 접하게 되는 여러 질문과 이슈들이 저에게 많은 배움과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부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고 바랍니다. 단체 및 교회와 다음 계획을 의논 중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

-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며, 영적 어두움을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과 빛이 충만하도록
-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기쁨, 체력, 건강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 언어 습득과 학업에 지혜롭고 민첩하게 하시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주시도록
- 학교생활과 이웃들과의 만남에 축복 주시고, 하나님 손 없어 주시도록
-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그리스도로 참된 살롬(평강과 온전함)이 임하도록
- 어려움 중에 있는 고국 교회와 동역자님들을 주 날개 아래 보호해주시기를

멕시코

박성주·노영이

현지 신학생들과 한국 및 미국 지역교회가 연결되기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9월부터 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졸업생 가정을 심방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을 보시고 각 학생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변화와 신앙의 부흥을 위해 먼저 동역자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멕시코 선교에 든든한 기초가 되리라 믿습니다.

2020년 졸업한 파뉘엘 목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집에서 작은 신앙 그룹을 만들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지역교회가 파뉘엘 목사님의 사역지와 연결되어 직접 선교에 참여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오스왈도 형제는 운영이 어려워진 아이스크림 가게를 접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서 수업 참여가 힘들어졌습니다.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을 이용하는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 방법으로 전환한 신입생 네 명이 현재 거의 공부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스왈도 형제와 계속해서 소통하려 합니다. 오스왈도 형제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공장에서 청바지를 만들며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우고 형제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들의 엄마는 없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주말에도 일해야 하지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출석하며 교회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서 출석 수업이 시작되면 직업을 바꾸더라도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고 형제에게 적합한 회사가 준비되고 한국과 미국의 지역교회가 연결되어 그의 사역이 안정된 힘을 얻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베레 자매는 현재 대학에서 음악 및 음향을 함께 공부하며 아버지인 마놀로 목사님 목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비전을 실현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 졸업

후 또 다른 학업의 기회가 준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1학년인 다니엘과 마리아나 부부는 규모 있는 개인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교회 건물도 스스로 건축할 만큼 목회적인 기초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우선순위여서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로 온전히 준비되기 위해 학업에도 성실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건축 중인 이들의 교회가 곧 완공됩니다. 목회의 확장이 필요한데, 한국이나 미국의 아웃리치 팀이 이들의 교회와 연결되어서 사역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편지에 많이 나오는 호셀린 자매는 북한선교에 소명이 있습니다. 저희와 여러 사역에 함께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 한국의 핏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장학프로그램에 지원하여 1차 통과된 상태입니다. 최종 합격하여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멕시코로 돌아와 저희와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

- ITP 신학교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제자를 길러내는 귀한 학교가 되도록
- 신실한 멕시코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동역하고, 사역자들을 신학교 신입생으로 모집하며, 꾸준히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게 하여주시길
- 신학교육 혜택이 어려운 지방에 캠퍼스를 계획 중인데,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오지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신학을 배우고 준비되도록
- 선교센터의 부동산 등기가 이미 사망해버린 매수자의 취득세 영수증 부재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주시기를
- 호셀린 자매가 핏볼 트리니티에 합격하여 선교사로서의 귀한 첫발을 뗄 수 있도록
- 선교사 부부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스페인어 사용에 능통하게 하여주시길
- 첫째가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가족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고3인 둘째가 주님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지혜를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주시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동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안식년 동안 여러분과 교제도 못 했는데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계획한 일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사역을 위해 공부하고 자료도 모았습니다. 대선지서 연구와 수업을 영상으로 하기 위해 온비디오스쿨(On Video School) 과정을 이수했고, 가정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결혼 지도자 코스에 참여했으며, 전화론이나 인본주의에 맞서 창조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창조과학스쿨을 수료하였고, 어린이 교육을 위해 몬테소리 과정에 참여하여 배웠습니다.

내년에는 은혜 신학교를 도시로 옮기고 목회자 양성을 계속하면서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유치원 교사 양성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토착문화가 강해서 성인은 교육을 해도 전통적인 생활로 쉽게 흡수되어 버립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을 시작해야 제대로 된 기독교인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서도 초청인 다루를 많이 생각해왔으나 유치원(선교원)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수도인 포트모르즈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은혜 신학교는 그레함 형제가 오지 않은 채 가이바 형제와 나사 형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레함 형제가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 중 수르미르 형제는 계속 아내를 때리는 습관이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퇴학시켰다고 하는데, 주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식년을 잘 마치고 영육 간에 재충전하여 선교지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심 선교사의 임플란트 치주염 수술이 잘 된 것과 장 선교사의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 해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시는 일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 학교 행정을 주관하는 가이바 형제가 '기본복음'을, 학사를 맡은 나사 형제가 '구약'과 '기독교 가정'을, 재정을 맡은 그레함 형제가 신약과 '설교법'을, 마을 복음화를 위해 일하는 이미길라 형제 부부가 레와다 마을 초등학교 종교시간을 담당하여 가르칠 때 성령님의 인도로 잘 준비하여 가르치도록
- 잠시 쉬고 있는 그레함 형제가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도록
- 수르미르 형제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도록
- 학교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안팎에서 계속되는데, 사역자들이 함께 겸손히 기도하며 대처하도록
- 실력과 영성을 갖춘 신실하고 진실한 스태프들이 많이 생기도록
- 어린이 사역 준비(땅, 건물, 동역자, 학생)가 잘되도록
- 서도에 있는 60여 부족에서 학생들을 적당히 보내주시고, 졸업생들이 계속 성경을 공부하며 겸손하고 신실하게 부족 복음화에 힘쓰도록
- 건전한 교회(복음교회, 연합교회, 침례교회, 오순절교회 등)와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 협력하는 부노회장 케와 목사, 데이비드 목사 등이 노회를 힘있게 이끌고 방해 세력들이 잠잠해지도록
- 심 선교사의 가슴 통증이 사라지고 장 선교사의 당뇨병이 낫도록

미국

홍에스더

여러 여행으로 가득한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일할 수 있도록

어지러운 때에 잘 지내시는지요? 어디를 봐도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구 5%가 외국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중 성경이 없는 언어를 찾아내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한국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경번역선교회(GBT)에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함께하기로 하고 7월 말에 비대면으로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코디네이터를 찾고 있는데 가장 합당한 사역자가 선정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에 글로벌 디아스포라 팀원 중 다섯 명은 대면으로, 한 명은 스위스에서 비대면으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사역을 위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분석, 통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팀이 생긴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고 많은 것을 함께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귀중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저희 사역에 귀한 바탕이 되는 자료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에서 회의한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사비를 털어서 위스콘신 대학 근처에 빌딩을 사서 캠퍼스 사역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젊은이를 위해, 미래를 위해 정말 멋지게 돈을 쓰는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단체가 앞으로 남은 언어의 성경 번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재정 지원을 요청했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을 모아 헌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른 필요를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9월에 미션 퍼스펙티브 강의를 위해 휴스턴으로 가기 직전, 타이어에 못이 박힌 것을 우연히 발견해서 조치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강의할 때 평균 연령 30대로 보이는 수강생 70명이 열심히 경청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되기도 했습니다. 북미주 선교단체 콘퍼런스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디아스포라 팀 회의에도 참석하였습니다.

10월 초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에서 선교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15년 만에 위클리프 부스 일을 하였는데 설 새 없이 학생들이 찾아와서 진지하게 선교에 대해 문의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도 학생들이 30명 정원의 교실을 꽉 채우고 끝난 후에도 교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피곤한 줄 모르고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10월 중순 성경 번역 콘퍼런스가 시작되었는데, 세계 전역에서 900여 분의 사역자가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대한 소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저의 소논문이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듯 여러 여행으로 가득한 일정입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무엇보다도 바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 여러 여행으로 가득한 일정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 한국 성경번역선교회(GBT)와의 디아스포라 사역 협업에 합당한 사역자가 선정되도록
- 각종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통해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1997년 미국에 와서 처음 간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면 성도님들이 따라 하는 것을 보며 참 감동하였습니다.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여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예레미야 29:11) 요즘 이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저희 가정은 정말 많은 변화와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저와 아이들이 먼저 미국에 들어왔고, 올해 7월 말에 그렉 선교사도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는 오직 선택하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저희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미국 플로리다의 텔러해시에 있는 작은 신학교로 인도해주셨습니다. 30년 전에 세워진 이 신학교에는 87세 되신 조앤이라는 총장님께서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선교사 파송과 교회 일꾼 세우기라는 목적을 두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4년 전부터 후임자를 찾으며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렉 선교사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그렉 선교사는 1995년부터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였고, 미국에서의 선교 사역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으로 봉쇄가 되면서 놀랍게도 미국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는 구성원이 몇십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이어서 재정이나 여러 사정이 참 어려웠는데,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문을 닫아야 할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덕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미국에 영적 파수꾼을 세우는 비전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선교사 양성과 교회 일꾼 세우기를 멈추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사역을 감

당하고 있는 아주 귀한 신학교입니다. 앞으로 저와 그렉 선교사가 함께 이끌어갈 이 신학교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익투스 크리스천스쿨과 소망교회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학교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과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를 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말씀과 기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어? 성경이 읽어지네」 6개월 강사스쿨을 잘 마치고 ‘어성경’ 강사증을 올 2월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읽도록 권하는 ‘어성경’ 사역을 앞으로도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줌으로 하는 여러 모임을 진행하면서 창조과학회의 세미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초급과 중급을 마치고 지금은 고급반을 듣습니다. 마지막 사역자반 과정까지 잘 배워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창조교육을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플로리다 신학교(TCCTC)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곳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가르치고 전하는 학교가 되도록
- 선교지의 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자기 나라에 선교사로 돌아갔는데, 코로나19로 막혀 있던 모든 길이 열려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 학사와 석사과정이 있어서 안식년 선교사님들이 공부하면서 재파송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이런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게 충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여러 선교단체 및 교회와 협력하여 신학교가 교사 훈련과 여러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도록
- 하나님께서 교수님들을 축복해주시고, 총장을 맡게 된 그렉 선교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신학교를 잘 부흥시키도록
- 둘째가 해병대 훈련을 안전하게 잘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 사역으로 바쁜 저희가 건강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ON편지〉와 함께한 시간

임동조 (SNS 공동체)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님, 이번에 〈ON편지〉의 ‘사람들 이야기’ 부분을 써보면 어떨까요?” 〈ON편지〉 47호 작업을 마친 후 어느 날 사역자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보통 때라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거절했을 텐데,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부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써볼게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 묻혀 글을 쓰는 것을 뒤로 미뤄둔 채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감 일을 앞두고 걸려온 전화에 ‘아, 이제 글을 써야 하는구나.’ 하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이야기를 쓸지 헤아려보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못해서 기도의 간증을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맞을까? 많은 분들의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될 텐데…….’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ON편지〉와 함께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써보려 합니다.

이메일을 찾아보니 〈ON편지〉와의 첫 만남은 2016년 3월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뭔가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능 기부자 모집에 지원해 〈ON편지〉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첫걸음을 떤 지 어느새 5년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ON편지〉에서 제가 하는 일은 편집과 디자인을 마친 〈ON편지〉를 이메일로 기도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단계의 작업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ON편지〉작업을 위해 본부에 방문하여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메일 작업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편지들을 읽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의 씨앗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음의 씨앗이 새로운 소망의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선교지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내 삶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기뻝합니다.

이렇게 <ON편지>의 흔적이 제 삶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일이 많지 않아 항상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수하게 나는 무엇을 한 것이 있을까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많은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을 천국에서 뵈는 때 “하나님,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섬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ON편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지는 못했어도 늘 제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작은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ON편지> 식구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각자의 처소에서 <ON편지>와 함께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질병중인 선교사

한라	동북아	녹내장 치료 중
이준수	일본	간암 수술 후 회복 중
김인경	일본	허리디스크와 왼쪽 어깨 힘줄 파열로 치료 중
김은하	영국	난소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
소리엘/소리샘	인도네시아	소리샘 - 유방암 수술 후 회복 중
		자녀 지수 - 소아당뇨
Paul	캄보디아	코로나19 확진 이후 폐기능 및 호흡기 치료 중
김사야/최마리아	캄보디아	자녀 해원 - Deng열로 인한 코마상태
한창욱/김미혜	미얀마	한창욱 - 코로나19 확진 이후 치아 신경 치료 중
		김미혜 - 코로나19 확진 이후 피부염 치료 중
박수아	베트남	원인불명 소양증 치료 중
심재욱/장선애	파푸아뉴기니	심재욱 - 가슴 통증
		장선애 - 당뇨
에젤	아랍에미리트	보그트 고야나기 하라다 병 치료 중 목디스크 치료 및 자궁내막증 수술 후 회복 중
박겸손	레바논	귀 진주종성 중이염 제거 수술 후 회복 중
한젠슨/한조니	이라크	자녀 크리스 - 어깨 수술 후 회복 중
김현우/우주희	케냐	김현우 - 어깨, 관절, 허리 치료 중
		우주희 - 어깨 통증, 두통 치료 중
에스더	온누리M미션	목디스크로 인한 통증, 팔 저림
이생명/이샘물	본부	자녀 예준 -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박영환	본부	뇌출혈 치료 및 다리 근육 통증 치료 중



2000선교본부

선교본부가 실행하고 있는 연말의 주요 사역과 계획(온누리선교 컨설팅, 선교헌금작정 준비, 예산 확정 등)을 지혜롭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 간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두란노 해외선교회

선교 현장의 Landing City 플랫폼(JATC, 대만TIM지부, TIM Japan, TIMA, 라오스 르왕남타, 알마티, 암만, 레바논 베카 난민센터, 다르항 선교 몽골 센터)이 안정화되어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동역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움직임이 있도록

온누리M미션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면서 대면 예배로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던 지체들이 예배당으로 마음과 몸을 옮겨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을 떠나거나 잃어버리는 영혼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도록

Acts29 비전빌리지

2022년 Acts29 Vision Village의 모든 계획과 스쿨 일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멋진세상

2021-2022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에 르완다 2명(유아교육, 농업), 우간다 1명(행정)으로 확정되어 인원을 모집 중입니다. 선교에 헌신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BEE KOREA

12월 6일 BBK(Blessing BEE Korea)에 BEE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년을 잘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SWIM

온라인 연합선교에 참여하는 9명의 선교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전후방연합선교로 섬기는 디모데 선교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도록

ON편지 안내 및 활용법

본 ON편지의 기도 제목은 최근 도착한 선교사의 기도편지를 우선으로 편집하여 신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지 말아 주시고, 버리실 때는 분쇄하여 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일에 따라 기도하기

ON편지는 1주일(월~토)을 기준으로 각 요일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일주일을 기준으로 요일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선교지역은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ON편지 지면에 따라 기도하시면 한 주에 한 지역의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

매주 특정한 한 지역을 마음에 품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고, 몇몇 지역, 혹은 전 지역을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주일에는 특별히 교회의 선교기관과 질병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로 함께하기

개인기도 뿐 아니라, 순모임 및 중보기도모임에서 ON편지로 함께 기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자리, 온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주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ON편지팀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2:00 / 목요일 오전 10:00



전화번호 02-3215-3616 (2000선교본부 대표전화)
02-3215-3212, 3250 (ON편지팀 직통전화)
주 소 044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52 3층
온누리교회 2000선교 ON편지팀
이 메 일 onnuri2000.su@gmail.com

*선교헌금 문의 및 선교관련 문의사항은 2000선교 본부로 직접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멋진세상
better world

크리스마스 선물보내기 캠페인

매리크리스마스!
년정말 소중한고맙다는 존재야!

반짝반짝 샤이닝 박스와 함께

부르키나파소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기쁜소식을 전해주세요.

2019년, 아프리카 최빈국 부르키나파소에 기적처럼 세워진 국생교회.
가난한 농촌 마을이지만 아이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올해로 3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성탄절의 참의미와 기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후원해주세요!

Christmas SHINNING BOX

구성 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책가방, 학용품, 간식 등)

기간 11월~12월



▲후원 바로가기

후원방법

더멋진세상 홈페이지 betterworld.or.kr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내선 0번)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크리스마스 샤이닝 박스를 위한 후원금은 부르키나파소 국생교회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